

등기	소송(소장)	신청	기타
소유권보존·이전	민사	지급명령	공탁
전세권 설정	형사	가압류	공증
근저당권 설정	가사	가처분	경매
지상권 설정	행정	강제집행	호적
법인설립·변경			
주식회사설립·변경 등			



연안 오징어 본격 조업철인데...

면세유 치솟아 이달들어 일부만 출어...40여척 조업 미뤄

지난 8일 어획량 3600급...새벽 동명항 모처럼 활기

하늘 높이 치솟는 기름값에 출어를 기피하던 오징어 어선들이 이달 들어 본격적으로 속초연안으로 조업에 나서고 있다.

속초수협에 따르면 지난 2일 3척의 어선이 시범 조업을 나선 것을 시작으로 현재 10여척의 어선이 속초연안에서 오징어 조업에 나서고 있다.

지난 8일에는 14척의 어선이 조업에 나서 3,600급(급당 20마

리)의 오징어를 잡아 활어는 급당 5,000원~6,500원(3,000급)에, 선어는 2,500원(600급)에 위판했다.

이에 앞서 7일에는 11척의 어선이 830급의 오징어를 잡아 급당 1만3,600원~1만7,900원에 판매했다.

현재 잡히는 오징어는 10cm 정도 크기의 어린 오징어로 육질이 부드럽고 감칠 맛이 더한 것으로 알려져, 매일 새벽 동명

항은 어린 오징어를 구입하려는 수도권과 지역 활어차량들이 몰려 들어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다.

하지만 수협은 최근 정치망 어선들이 그물에 걸린 죽은 어린 오징어(선어)를 싼 가격에 위판해 적정 판매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조업에 애를 먹고 있다고 했다.

여기 예다 지난달 15만6,000원에 공급되던 면세유 200ℓ 1드럼당 가격이 이달 들어 사상 최고 가격인 17만2,600원으로 치솟자 40여척의 어선이 출어경비 부담으로 조업을 미루고 있다.

수협은 이같은 조업여건으로 속초연안의 오징어가 끊어지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어선들이 고유가에 따른 기름값 부담으로 정상적인 출어보다는 시험조업에 의존하는 조업부진 현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수협 관계자는 "지난 8일 조업에 나선 일부 어선들의 경우 어획고는 적당 40만원~60만원에 불과한데 비해, 고유가로 전체 출어경비는 100만원에 달해 어민들이 조업경비 부담에 애를 먹고 있다"고 했다.

고명진 기자mjgo9051@hanmail.net



지난 9일 오징어 조업이 본격화되면서 조업을 마친 어민들이 동명항에서 오징어 하역 작업이 한창이다.

알림

설악신문 '시민기자'를 모집합니다 수시 접수...기사 게재시 고료 지급

올해로 창간 18주년을 맞는 설악신문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지역신문으로 거듭나기 위해 '시민기자(취재·사진)'를 모집합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시민들이 직접 생활현장에서 발굴해 작성한 뉴스를 본지 지면에 게재하고 소정의 고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시민기자제'는 지역사회와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의 여론과 관심을 실질적으로 지면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신문'으로서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시행하게 됐습니다. 특히 주민생활밀착형 콘텐츠를 강화해 지역신문으로서의 차별성을 뚜렷하게 하고자 하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시민기자는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본사에 등록 후 자유롭게 활동하게 됩니다. 수시로 접수 받고 있으며, 6월부터는 시민기자면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기자면은 생활경제, 교육 및 보육, 환경, 지역주민 생활상, 각종 행사 관람기 및 여행기, 우리 마을 소식, 불편사항 고발, 각종 사진 등 생활밀착형 뉴스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서류 : 간단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사진 1매 (연락처 꼭 기재)
- 접수방법 : 우편(속초시 청학동 482-263), 팩스(033-636-2227)
이메일(soraknews@soraknews.co.kr)
- 문의 : 636-2222~6, 설악신문 편집국
- ※ 지원서류 접수 후 꼭 전화 연락 바랍니다.

(주) 설악신문

짧은 생명이다. 우리 쌀을 지킵시다. **고성오대미**

▶ 음식점 전용쌀 판매개시 ▶ 주문즉시 가공판매
주문 배달문의 ☎ 033) 633-00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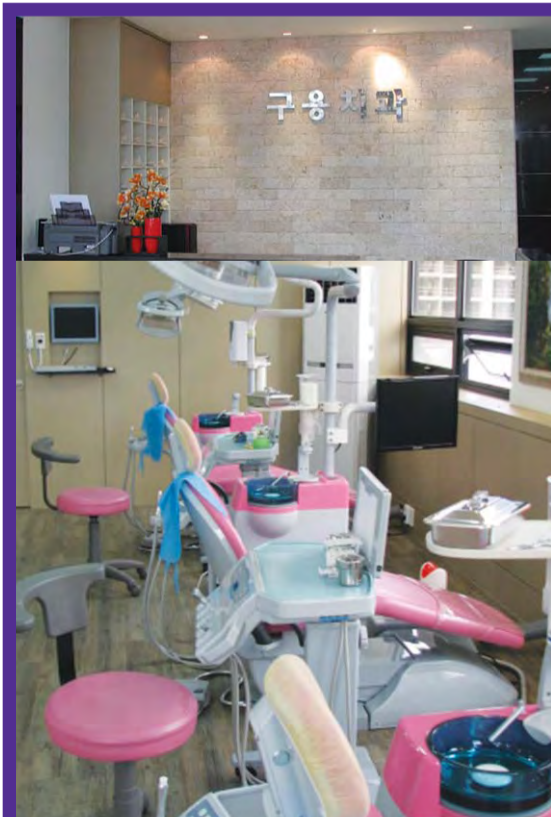
* 주문즉시 단 한포라도 가정까지 신속히 배달해 드립니다.
고성농협연합미곡종합처리장

구용치과 이전 안내

지금까지 보내주신 지역주민들의 따뜻한 사랑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진료환경을 위하여 기존의 장소 바로 아래 주공1차아파트 입구에 위치한 김태영 내과의원 2층으로 이전하여 4월 21일부터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관심과 도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미소를 지닌 치아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 드립니다.

구용치과 의원

☎ 632-2828, FAX 공용. 636-2875



저상버스 도입·터미널 개선 양양군, 2011년까지 교통편의 증진

양양군은 올해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및 교통시설 개선사업에 착수한다.

군은 지난 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연차계획으로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보행환경 등 분야별 교통여건 개선에 나서기로 확정했다.

군은 올 하반기부터 2011년까지 농어촌버스 안내시설과 내부시설 개선 및 LED표지판 설치 등을 실시하고, 저상버스는 2010년 1대, 2011년 2대 등 단계적으로 3대를 도입하며, 특별교통수단인 셔틀버스도 같은 기간에 2대 도입할 예정이다.

또 터미널은 내년에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하고, 버스정류장은 이달부터 2011년까지 이미지를 통일해 50개소를 개선 및 확충할 계획이다. 버스이용 정보시스템은 2011년 터미널과 주요 정류장에 설치한다.

보도는 내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2km씩 연차적으로 6km를 개선하고, 올 하반기부터 보행신호기 및 잔여시간 표시기 20개소를 설치해 보행환경을 크게 바꿔나갈 방침이다. 보도는 양양군청~홈마트 앞(왕복 1.4km)과 상면내과~우신연립(왕복 0.6km), 수협 낙산지점 앞(왕복 0.7km), 강현농협 앞(0.5km), 인구초교~하조대농협(왕복 1.3km) 구간을 우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각종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해 교통정책에 반영하고 이동지원센터도 1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군은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대중교통 및 교통시설 개선사업에 22억8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김주현 기자

설악신문 구독 및 광고문의

☎636-2222~6

설악로데오거리 사업안 확정

최종 주민 설명회 열어...내년 12월 완공 예정

도심 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설악로데오 거리 조성 사업의 최종 계획안이 확정됐다.

시는 지난 9일 중앙로 설악 로데오거리 조성사업 최종 주민설명회를 이 일대 주민 및 상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용역을 맡은 한국종합기술과 정엔지니어링은 설악 로데오거리가 완공되면 쾌적한 도시생활환경 조성과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문화·관광·쇼핑거리 조성으로 도심관광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했다.

또 이 같은 도심상권 변화가 중앙로 상권회복으로 이어지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기간은 이달~내년 12월까지로 모두 74억6,4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공사 구간은 중앙로 청학사거리~국민은행 앞까지 약 900m다.

용역기관은 테마가 있는 공간(거리) 조성을 위해 속초의 자연과 꿈, 사랑, 추억(갯배) 등의 테마를 부여하고, 이벤트 및 문화축제 등을 통한 공간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테마 광장으로 △하늘의 푸르름이 땅으로 이어지는 청학광장 △애뜻한 연인들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연인의 광장 △설악의 자연 속에 단풍의 향기를 테마로 한 설악단풍광장 △바다(꿈, 미래)로 향하는 속초를 나타내는 바다광장 △옛 그 시절 갯배의 추억이 담긴 갯배광장 △속초의 자랑스런 모습들을 테마로 조성하는 속초의 광장 등을 제시했다.

보행·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협소한 보도폭을 넓히고, 지장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고명진 기자

행정관서 딱딱한 이미지 벗어주세요

속초시, 부서마다 입구에 슬로건·직원사진 내걸어

요즘 속초시와 일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부서 출입문 입구에 설치된 고객만족 슬로건에 눈길이 간다.

부서의 특징을 살린 슬로건과 함께 환한 미소로 민원인을 반기는 직원들의 모습이 담긴 액자 사진을 부착해 지금까지 행정관서의 딱딱한 이미지를 바꿔버렸기 때문이다.

해양수산과는 '어업인이 행복한 미소를 지을 때 우리도 웃을 수 있습니다'라는 슬로건과 미소를 띤 직원들의



민원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수질환경사업소의 슬로건 사진.

사진을 부착해 조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또 재난산림과는 일반인들이 부서의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

속의 푸른 도시 속초!', 속초시박물관은 '역사와 추억을 만지며, 미래를 찾아가는 희망과 문화의 산실'을 슬로건으로 정해 민원인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또 노학동주민센터는 '당신을 미소 짓게 행복하게 해주는 주민센터', 수질환경사업소는 '물은 생명의 근원! 수질환경사업소가 지켜나가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민원인들에게 포근함과 믿음을 동시에 주고 있다.

시의 이 같은 변화의 바람은 지난 2006년 '목표가 없으면 방황한다'는 부서별 고객만족 슬로건 선정계획에 의해 시작됐으며, 올해는 민원인들의 눈 높이에 맞는 슬로건을 재선정해 직원 사진과 함께 내걸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목표로 작은 것부터 한걸음 한걸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명진 기자
mjg0051@hanmail.net

28번째 늘사랑 장학문화재단 장학금 수여식



한국늘사랑회

허은걸(동경대학원), 최윤화(서울대), 장길현(신흥대), 신강호(청암대), 백정현(청암대), 이승연(강릉대), 어효준(경동대), 최성현(경동대), 조용호(상명대), 한아름(영동대), 양여진(동우대), 이주연(동우대), 송영욱(대전신학대), 권미경(사이버대), 강나영(성화대), 안준호(협성대), 김병수(설악고), 박신애(경포고), 이승지(북평여고), 박찬(속초고), 김찬미(동산고), 김용환(동광고), 윤정이(거진중학교), 방인애(경포고), 정재훈(명지외국어고), 김은지(목호고), 강지훈(양양고), 김은혜(설악고), 김태환(속초고), 김희정(설여중), 오동훈(속초중), 김가솔(동해중), 마수연(영해중), 김지훈(양양중), 마정은(양양여중), 김시내(설여중), 문하늘(속여중), 김태영(속초중), 김철웅(속초중), 전나은(설여중), 김영중(거진초교), 김건오(교동초교), 김종현(교동초교), 민병철(속초초교), 엄혜지(속초초교), 정현우(속초초교), 조윤정(속초초교), 김은애(속초초교), 안정희(소야초교) 등 총 49명, 1천4백8십5만원

- 총수혜자 : 583명, 2억3천5백7십9만2천5백원 지급
- 전이사 : 동문성 · 이규철 · 정영태 · 박정일 · 권태복 · 김종식 · 장치영 · 신동만 · 강희용 · 박광복
 - 이사장 : 김상기
 - 현이사 : 강병남 · 이원재 · 김성근 · 윤강준 · 이윤수 · 정미경
 - 감사 : 이동열 · 권오돈 배상

국회연수원 고성 건립 '제동' 귀추 주목

한나라당 "18대 국회에서 결정해야" 국회사무처에 요구

충북지역 정치인 제천 유치 표명에 촉각 국회사무처 "연수원부지 변경 계획 없다"

국회연수원의 고성군 건립에 대해 한나라당이 제동을 걸고 나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사무처가 국회연수원을 고성군 도원리에 짓기로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한나라당이 17대 국회 임기 중에 국회 연수원 입지를 결정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즉, 2,000억원이 넘는 국회연수원 입지 결정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17대가 아닌 18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성군과 한나라당 도당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지난 1일 원내대표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국회사무처에 발송했다.

국회연수원 입지 결정은 국회의장 전 결 사항으로, 국회사무처가 지난달 11일 고성군에 국회연수원 결정 통보를 보내 왔지만, 국회의장의 결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국회사무처도 18대 국회가 구성돼 의

장 결재가 이뤄진 후, 사업시기와 규모 등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지역에서는 한나라당의 제동이 국회연수원 입지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국회연수원의 고성군 건립에 제동을 걸고 나선 정치인은 한나라당 제천·단양 선거구의 송광호 당선자(현재 한나라당 충북도당위원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당선자는 충청권 국회의원들과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결집해 국회연수원을 충북 제천으로 가져오겠다는 의사를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충청권을 중심으로 국회연수원 고성 입지 결정에 대한 반발이 거센데다, 접근성 면에서 중부권이 비교 우위에 있다는 국회 내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당의 이 같은 '보류' 요구가 국회사무처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강원도당은 "법을

제정하는 권위 있는 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결정한 사항으로, 지리적으로 멀다 하더라도 통일을 대비해 고성군으로 (국회연수원) 입지가 결정된 만큼 수용해야 한다"며 "국회 의견을 존중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는 진정서를 지난 7일 한나라당 당 대표실과 원내대표들에게 발송했다. 또 강원도의회와 18개 시·군 의장단협의회도 오는 13일과 16일 각각 국회연수원의 고성군 유치 당위성과 국회 의견 존중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한나라당에 발송할 예정이다.

김흥선 고성군의회 의장은 "이미 결정된 사안을 번복하려는 것은 고성군민 뿐 아니라 강원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통일을 대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충분한 고심 끝에 결정한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고성군 도원지구가 연수원 건립 부지로 선정되기 위한 제반 여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연수원 입지로)확정했고, 연수원 건립부지 변경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국회사무처에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용수 기자 ellan92@goseong.org

고성군의회 주요사업장 점검 제179회 임시회 15일 까지

제17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지난 8일 개회, 오는 15일까지 8일간 열린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8일 오전 10시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고성군 지방공무원 예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어 9일부터 14일까지 남북교류타운 건립사업장,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확·포장공사장 등 지역 내 5개 읍·면 주요 사업장을 현지시찰하고 사업 진행 사항을 점검한다.

군의회는 오는 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동해안 고속도로(속초-고성간) 조기 건설과 경기도 강화~강원도 고성 연결로 조기 국도 지정 건의안을 채택하고, 고성군 수산물가공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용수 기자 ellan92@goseong.org



이진호 양양군수가 지난 2일 열린 태을제 개막식 축하 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양양군 군포시 방문 교류

지역축제 태을제 참가...특산물 홍보

양양군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경기 군포시의 지역축제인 태을제에 참가했다.

이진호 양양군수 등 방문단 44명은 첫날인 2일 태을제 개막식에 참석한 뒤 축하공연을 관람하고 이튿날 철쭉꽃 동산과 고양 꽃박람회를 견학하고 돌아왔다.

이번 군포시 방문에서는 김철래 농협 양양군지부장 등 농협관계자들로 구성된 농산물판매단과 서면 송천리 떡마을 주민들이 양양군의 특산물을 홍보하며 군포시민들과의 교류를 펼쳤다. 김주현 기자

주공 청대아파트 임대분양 10월 시작

30년 장기임대 5개동 371세대...내년 11월 입주예정

지난해 9월 착공한 대한주택공사의 속초 청대국민임대아파트 임대 분양이 오는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30년 장기 임대아파트인 청대국민임대아파트는 내년 11월 입주 예정으로, 주공측은 지난 7일 오는 10월부터 임대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대국민임대아파트는 14층 5개동 규

모로 공급면적 53㎡형(16평형) 98세대, 67㎡형(20평형) 2백8세대, 75㎡형(22.7평형) 65세대 등 모두 3백71세대가 들어선다.

입주 자격은 전용면적이 50㎡ 이하인 53㎡형과 67㎡형은 무주택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2007년도 257만2,800원) 이하여야

하며, 단독세대주는 53㎡형에만 입주가능하다. 속초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1순위다.

전용면적이 50㎡ 이상인 75㎡형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007년도 367만5,431원) 이하여야 하며, 청약저축 가입 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 1순위, 6회 이상 납입 2순위, 그 외(청약저축 미가입자도 해당)는 3순위다.

토지 5,000만원과 자동차 2,200만원 이상의 자산 소유 세대는 신청이 제한된다. 장재환 기자

제45회 전국 자유수호옹변 속초시 예선대회

국민 안보의식 고취와 자유민주주의 옹호·발전의지를 확산시켜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힘을 보태고자 제45회 전국 자유수호 옹변대회 속초시 예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2008. 5. 17(토) 14:00 (*순위추첨 당일 13:40)

●장소 : 속초문화회관 2층 소강당

●대상 : 초·중·고 학생 00명
(각 학교당 17학급 미만시 1명, 17학급 이상일 시 2명 참석 가능)

●후원 : 속초시, 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

한국자유총연맹 속초시지부

행정안전부 공무원 감축 발표 '술렁'

속초시 48명 · 고성군 25명 · 양양군 33명 감축 통보

결원 있어 실제 감축인원은 적어

정부가 지방공무원 1만여명을 감축한다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도내 공무원도 720여명 가량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설악권 각 시·군도 크게 술렁이고 있다.

각 시·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광역자치단체에 각 시·군별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의 감축범위를 구체적으로 시달렸고, 도는 2일 18개 시·군

에 이를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시·군별 감축 대상 인원은 속초시 48명, 고성군 25명, 양양군 33명이다. 하지만, 총액인건비 기준 공무원 정원에서 속초시 25명, 고성군 8명, 양양군 21명이 결원상태라 실제 감축인원은 이 보다 낮은 속초시 23명, 고성군 17명, 양양군 21명이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1개 실과소를 20명 이상으로 정함에 따라 미달되는 과의 업무기능 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무원 구조조정 로드맵은 오는 20일까지 자치단체별 조직개편 계획을 수립해 감축 규모를 도에 보고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기구·정원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오는 7월 15일까지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을 협의하고, 오는 11월 행정안전부가 개편성과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오는 12월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개편성과가 미흡할 경우 행정안전부가 해당 지자체에 감축기조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각 시·군이 명예퇴직을 유도할 방침인 가운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통과여부가 명예퇴직 공무원 수의 증감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보다 연금손실분이 30%에 달해 공무원들의 명예퇴직이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연금개정이 지방공무원 조직개편과 연계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번 구조 조정안을 바탕으로 6~7월경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예상되고 있어 당분간 설악권 등 각 시·군의 공직사회는 정부의 감축계획에 따른 후폭풍으로 술렁일 전망이다.

김주현·이용수 기자, 이수영 프리랜서 기자

인위적 퇴출 아닌 자연 감축 유도

신규채용도 제한...1개 실과소 20명 이상 정해 기능 조정 불가피

각 시·군 감축 대응 어떻게

속초시는 이미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명예퇴직 수당으로 10억원을 세웠다고 한다. 30년 이상 공직에 근무하고 향후 5~6년 정도 정년을 남겨둔 공무원의 평균 명예퇴직 수당이 약 9천만원~1억원 선이다. 사무관급 10명의 명예퇴직 수당 준비금인 셈이다.

속초시의 감축대상 인원인 23명이 이번에 일시에 감축되는 것은 아니다. 23명을 별도 정원으로 인정하고 총액인건비에도 포함된다.

명예퇴직 등 자연감소를 우선하고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선에서 인원감축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속초시에 따르면 시의 감축인원이 많은 것은 지난 2002년말 총인구수 9만명을 기준으로 지난해말까지 인구감소분을 반영한 결과다.

한시적으로 설치된 기구는 기한 연장을 지양하고 설치목적이 달성되면 자동 폐지토록 한 지침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적 특성에 맞게 만든 현안 기구와 필요기구 등은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따라서 속초발전추진단 등 속초시가 의욕적으로 만든 기구는 존속할 것으로 보인다.

대과 제도를 도입해 1개 과는 20~30명 이상을 두도록 한 지침도 업무성격에 맞

지 않는 과들 끼리 통폐합하는 무리수를 두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인원 감축기준도 일반직 8.1%, 기능직 8.1%, 별정직 8.1%, 무기 계약직 8.1% 등 동일비율로 할 계획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가 강원도에 인구 2만명과 면적 3㎢ 이하의 동 통폐합을 권고해왔지만 도내 어느 일선 시·군도 통폐합을 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가 강원도를 지명해 동 통폐합을 확대 추진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속초시는 4개 동이 통폐합 대상이며 청호동, 교동, 금호동, 동명동, 영랑동 등이 그 대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양군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1개

실과소를 20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현재 미달되는 5개 과의 업무기능 조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5급 사무관 한 지리가 축소될 것이 기정 사실화돼 감축여파는 더욱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에다 21명의 결원을 이번 감축인원으로 대체하면 당분간 신규 채용이 불투명해 탄력적 조직운영에도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성군은 현재 인원 감축을 인위적인 퇴출식이 아닌 자연감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고성군은 올 연말까지 3명의 실과장을 포함해 총 10여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가고, 연금법 개정에 따른 명예퇴직을 유도한다면 25명의 인원 감축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성군도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1개 실과소를 20명 이상으로 정함에 따라 현재 미달되는 2개 과의 업무기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이용수 기자, 이수영 프리랜서 기자

고성군수 보궐선거 6명으로 압축

남유현·박효동·신명선·윤승근·황병구·황중국 예비후보 등록

20일 부터 후보 등록

6·4 고성군수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일주일 남겨 놓고 있는 가운데 후보군이 6명으로 압축되면서 선거 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남유현 전 강원도인재개발원장, 박효동 고성군의원, 신명선 전 도의원, 윤승근 전 도의원, 황병구 전 고성부군수, 황중국 전 고성군수(가나다 순)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쳐 6명으로 압축됐다.

한나라당 중앙당에서 이번 보궐선거를 무공천으로 결정해 신명선 출마예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예비후보 등록지는 후보자 등록일전인 오는 19일까지 한나라당을 모두 탈당해 무소

속으로 출마하게 된다.

신명선 전 도의원은 통합민주당 공천을 희망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특히 무소속 출마자들은 추천인수 300명 이상의 유권자 서명을 받아야 후보자등록이 가능함에 따라, 선관위에서 추천장이 교부되는 오는 15일부터 선거전이 본격화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예비 후보자들은 선거사무실을 잇따라 개소하고, 유권자 표심을 얻기 위해 각 지역 및 행사를 쫓아 다니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또 무공천 결정으로 한나라당 소속 출마예상자들이 고성지역 한나라당 조직 잡기에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후보 안내 설명회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일 오후 2시 6·4 고성군수 보궐선거 입후보자 안내 설명회를 가진 가운데 참석한 출마예상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선의의 경쟁을 다짐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과 군의원, 각 읍·면협의회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특정 예비후보지지 표명 기자회견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특정 예비후보자와 사전 협의하고, 그 특정후보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결정해 무산됐다.

이에 대해 다른 후보들은 한나라당 중앙당의 무공천 결정은 한나라당 조직과 상관 없이 유권자의 표심을 얻어 선거를 치르려는 뜻인데, 일부 당직자들이 조직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당의 뜻에도 반할 뿐 아니라 선거법에도 어긋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용수 기자 ellan92@goseong.org

김순매 고성군의회 사퇴

지난 8일 임시회에서 사직의 변 밝혀...“개인사정상 중도하차”



“남편 군수 출마했는데 의원직 유지는 군민 기만” 한나라당 비례대표 추가 등록자 없어 공석으로

김순매 의원이 지난 8일 제17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사직의 변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정당 비례대표 의원직이기는 하나 군민들이 고성군의회이란 중책을 맡겨 주셨는데, 가정사정상 4년의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하차할 수밖에 없어 용서를 구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함으로 인해 군민들로부터 매우 따가운 질책이 뒤따를 것이란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군민들이 상심하는 마음만큼 저를 아끼고 성

원해 주신 것이라 생각해 충심어린 충고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또 “선배, 동료의원들의 도움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했다고는 하지만, 사람인지라 부족한 점도 많음을 잘 알고 있다”며 “개인사정으로 의회를 떠나지만 군민의 한 사람으로 고향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고성지역은 한나라당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한나라당 공천자가 낙선하는

사퇴가 빚어져 한나라당 당원으로 공천자를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죄책감을 통감한 것도 사퇴를 결정하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남편이 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상황에서 고성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직을 가지고, 남편 돕기에 나서는 것은 군민들을 기만하는 것 밖에 안 된다”며 “평범한 아내의 직분으로 돌아가 남편 내조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은 2006년 지선에서 고성군 기초의원 정당 비례대표 후보자를 김순매 의원 외 다른 후보를 등록하지 않아, 비례대표 의원직은 공석으로 남게 되며, 이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원 수는 7명에서 6명으로 줄게 된다.

이용수 기자 ellan92@goseong.org

우수공모제 수상자 선정

김철래·이건섭·이장섭씨 최우수상

양양군이 지난달 시행한 우수 공모제 결과 시책과 포어, 문안 등 3개 분야에서 우수자들이 선정됐다.

이번 우수 공모제 시책분야(감성리더화)에서는 김철래씨(행정 6급)와 이연경씨(사회복지 9급), 김영준씨(농업기획담당)가, 포어분야(효과극대화)는 이장섭씨(농촌지도사)와 이상호씨(주민생활지원담당), 지영환씨(보건 7급)가, 문안분야(가치재발견)에서는 이장섭씨(문화시설관리담당)와 배용직씨(공업 7급), 권지숙씨(행정 7급)가 각각 분야별로 최우수와 우수, 장려상을 수상했다.

김철래씨는 자전거 부스 확장 및 소공원 조성 제안으로, 이장섭씨는 ‘나의 브랜드가 양양군의 브랜드입니다’, 이장섭씨는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곳, 꿈이 이루어지는 양양입니다’라는 제안으로 분야별 최우수자에 선정됐다.

양양군은 7급에서 4급 서기관까지 공무원들로 자체 평가단을 구성, 엄격한 심사를 거쳐 혁신과제를 선정했다. 군은 이번 우수 공모제에 선정된 수상자들에게 교육훈련시간 인정과 상장 및 부상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 혁신과제 추진 독려 및 사기 진작에 나서고 있다.

한편 이번 우수 공모제에는 3개 분야에서 총 42건이 응모됐다.

김주현 기자 joo68523@hanmail.net

도의회 순회간담회 양양서 첫 개최

오색케이블카 설치·양양공항 활성화 방안 등 건의



김남현 양양군시장협의회장이 도의원들에게 지역현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다.

강원도의회(의장 이기순)가 올해부터 도내 주요 현안들을 직접 챙기기 위한 지역순회 의정간담회에 나선 가운데 지난 6일 양양에서 첫 도의회 간담회를 갖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도의회는 이날 양양일출예식장에서 의

장단과 박용길·임용식 도의원, 이장단,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순회 간담회를 열고 지역현안과 관련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했다.

지역주민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양양지역의 주요 현안인 오색케이블카 설치사

업과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등에 대해 질의했고, 도의회는 현실적인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김남현 양양군시장협의회장은 양양시가지 침수방지대책 확대지원, 김동길 현남면 시면리장은 농사용 전력공급시 시설작목도 싸게 혜택을 받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김익환 농업경영인양양군연합회장은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우리농산물의 학교급식 사용과 임대농기계 확대지원을 요구했으며, 김광래 양양군새마을협의회장은 부녀회장들의 법적 지위 명시화 등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도내 18개 시·군 중 처음 시작된 도의회 순회간담회는 도정과 연계된 지역현안을 세세하게 살펴 주민들의 애로사항 및 지역현안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용식 도의원은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분야별로 담아내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 큰 성과였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이 도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양양지역 지역순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매월 도내 각 시·군을 돌며 주민들의 생생한 민생현안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김주현 기자

www.longtermcare.or.kr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으로 고생하는 어르신을 함께 돌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아들·딸의 이름으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문조사, 등급판정
2008년 4월 15일 부터

보험료 납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2008년 7월 1일 부터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콜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보조금 심의위 구성 요구

경실련 등 시민단체 성명

속초경실련과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속초성폭력상담소, 속초YWCA는 민간경상보조 및 행사보조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4개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수사와 관련해 "사회단체보조금보다 41배나 많은 208억여원에 이르는 민간경상보조 및 행사보조 예산이 전적으로 담당부서 및 공무원 책임 하에 사업의 심의와 정산이 이뤄져 예산의 부정 집행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경상보조 및 행사보조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가 하루속히 민간 이전 예산 집행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시민단체와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시의회도 행정사무권을 발동해 민간이전 예산에 대한 실태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5억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현재 문제가 된 보조금 집행과는 달리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가 구성돼 사업심사 단계에서부터 예산낭비 및 부적절한 집행을 원천 차단,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명진 기자 mjg9051@hanmail.net

단기방학 하루·이틀 실시

올해 속초지역 초·중학교는 단기방학(재량휴업)을 연휴와 연계해 하루, 이틀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초양양교육청에 따르면 청호·조양·청대초교가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단기방학을 가져 석가탄신일인 12일까지 5일간 휴일이 이어지도록 했다. 6월에는 6일 현충일 연휴와 연계해 8일까지 전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단기방학을 갖는다.

단기방학 도입을 두고 맞벌이 부모 자녀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과 단기방학에 대한 학부모 수요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재환 기자

속초시 조도 살리기 나서

조류 배설물 세척·공포탄 발사기 설치 조류 퇴치

속초시가 조류 배설물에 의해 고사 위기에 처한 속초8경의 하나인 조도 살리기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조도가 봄철 철새 개체수 증가에 따른 배설물로 소나무와 산죽 등 자생식물이 고사 위기에 처해 현지 실태조사에 이어 생태복원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03년부터 진행된 조도의 소나무 고사위기를 단순히 자연적 순환 일부로 판단했으나 더 이상 생태변화를 방관해서는 안된다는 시민과 환경단체의 요구에 따라 조도 생태복원대책을 수립하기로 하고 1단계로 지난 1일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환경전문가와 속초해경, 시청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 1단계(현지 실태조사) 토양오염도 조사에서 조도에서 발견된 흰색 물질이 병충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조류 배설물로 확인됐다.

또 전문 시험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요산에 의한 토양산도 상태 조사 결과에서도 정상으로 판명됐다.

이에 따라 시는 조도 살리기를 위한 2단계 작업으로 산림청 헬기와 산불감시대들을 투입, 조류 배설물 세척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3단계 작업으로 배설물의 주요 인자인 가마우지의 퇴치 및 개체수를 줄여

야 한다는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과 한국나무종합병원(강원대) 등의 자문에 따라 공포탄 발사기를 설치해 조류 퇴치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조도 자연환경을 위협하는 조류 배설물의 세척작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배설물에 의한 광합성 방해로 고사위기에 처한 소나무와 자생식물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류 배설물 세척에 이어 가마우지 등의 퇴치로 조도 서식환경이 회복되면 조도가 속초8경의 이미지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고명진 기자

210기무부대 속초반 봉사활동 앞장

매일 양로원 봉사·소년소녀가장 학비 지원



210기무부대 소속 속초반 장병들이 지난달 29일 까리따스 마테오 요양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성군 토성면 용암리에 위치한 210기무부대 소속 속초반(반장 권오진 준위)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는 나눔의 문화를 실천하고 있어 미

답이 되고 있다.

장병 22명과 부사관 8명으로 구성된 속초반은 매일 까리따스 마테오 요양원을 찾아 청소와 제초 작업 등의 허

드렛일을 도맡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사관들은 급여 날이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마테오 요양원에 전달하고 있다.

또 지난 2005년도부터 지역의 소년소녀가장들과 자매결연 맺기에 나서 외조부모와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유도경양(고1, 속초 도문동)에게 3년동안 매월 8만원씩 학비를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적은 인원에도 불구 틈틈이 모내기 등의 대민지원에도 나서고 있고, 독거노인 위문활동도 펼쳐오고 있다.

권오진 반장은 "군부대는 국토방위가 최우선이지만 주민이 있어야 나라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화합하고, 함께 생활하는 것도 군부대의 기본 의무"라고 말했다.

210기무부대 본부는 서울에 위치해 있으며, 전국적으로 총 9개의 반으로 편성돼 특수임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수 기자

ellan92@goseong.org

◆범죄피해를 당하셨습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속초·고성·양양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및 유가족들에게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고 상담·의료·법률·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빠른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무부 등록 비영리 법인단체입니다.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

- ▶상담지원 : ※전화상담 ※면접상담 ※방문(출장)상담 ▶의료지원 : 병원안내 및 동행,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한 치료 / 의료비 지원
- ▶법률지원 : ※형사조정 ※정보제공 ※수사기관 법정동행 ▶경제적지원 : 범죄피해로 인한 생계 곤란자 ※경제적지원 ※학자금지원 ※취업알선

법무부
사단법인
**춘천지방검찰청속초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락처 : 033. 638-1111 속초시 동명동 280-2 속초지청 정문 앞 동명빌딩 2층

“소야벌 개발 백지화 강경 투쟁”

반대투쟁위, 주민소환·주민투표 1만명 서명운동

도시개발을 위한 소야벌(노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임박한 가운데 이 일대 토지소유자들이 소야벌 개발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강경 투쟁 입장을 밝히고 있어, 갈등양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소야벌보존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오후 2시 속초농협 회의실에서 130여명의 토지소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명칭을 소야벌강제수용 반대투쟁위원회(이하 반투위)로 변경하고, 속초시가 도시개발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반투위는 성명서에서 “속초시가 주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소야벌이란 억지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우리 토지소유자들은 속초시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대화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으나 시는 끝까지 주민의사를 왜곡 호도하고 독단으로 일관했다”고 성토했다. 또 “매년 1,000명씩 인구가 줄고, 아파트가 남아 돌고, 청초호유원지는 빈터로 방치되고, 북부

권의 공동화를 우려하면서 재래시장과 도심지 상권의 붕괴와 위축을 가져올게 불보듯 뻔한 소야벌 개발사업을 도대체 왜 추진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반투위는 “시가 지금 당장 소야벌 개발사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서명운동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했다.

반투위는 이날 주민소환과 주민투표를 염두에 두고 1만명 주민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주민소환에 필요한 시 유권자 6만 4,400여명의 15%에 해당하는 9,600명의 서명을 받기 위해 가정방문이나 거리 서명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자필편지 및 인터넷을 활용한 청와대 편지쓰기운동 전개와 시의회의 협조 아래 속초시정 바로잡기 범시민 연대를 발족해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 투쟁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광훈 반투위공동위원장은 “소야벌



윤광훈 공동위원장이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끝까지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도시개발과 관련해 중앙도시계획위의 의결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며 “지난 8일까지 서명운동에 주민 2,200여명이 참여하는 등 주민들이 반투위의 입장에 많은 지지를 보이고 있어, 지금이라도 속초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속초 노학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조건부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소야벌 개발사업은 보상 등 세부적인 계획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 됐다.

고명진 기자 mjg9051@hanmail.net



교동초 캐치프레이즈 현판식

교동초등학교(교장 이충일)는 지난 3일 김성근 운영위원장과 총동창회장, 어머니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캐치프레이즈 현판식 및 교기 게양식을 가졌다. 교동초교는 ‘밝고 맑은 꿈, 아름다운 어린이’를 캐치프레이즈로 정했다. 이우철 기자

속초시보건소 일본뇌염 예방접종

속초시 보건소는 이달 들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자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무료로 일본 뇌염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접종기간은 지난 1일~오는 30일까지이며, 초등학교 1학년은 오는 16일까지, 중학교 1학년은 19일~30일까지 보건소 예방접종실에서 실시된다.

보건소는 일본뇌염은 치명률이 5~10%로 특별한 치료방법이 따로 없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고명진 기자

낙산지역 호객행위 관광이미지 실추

연휴기간 숙박업소 과당경쟁, 관광객들 불편 호소

양양군의 최대 관광지인 낙산지역의 숙박업소들이 무차별적 호객행위로 관광객들로부터 큰 원성을 사며 관광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어 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관광객들에 따르면 낙산지역의 숙박업소가 밀집된 곳에서 통행하는 차량까지 세워놓고 호객행위를 하는 일이 빈번해 불편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연휴 낙산을 찾은 한 관광객은

“아무리 경쟁이라고는 하지만 차량까지 세워놓고 호객 행위를 하는 통에 귀찮기도 하고 사고위험도 높아 혼났다”며 “관광지 이미지마저 해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숙박업소들은 호객행위에 다 바로 옆의 모텔이나 펜션이 ‘방 있음’이란 낱말을 부차하고 돌아서면 곧바로 ‘빈방 없음’이란 낱말로 돌려놓는 일도 일수라며 과당경쟁이 관광지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낙산지역 상인들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숙박업소들은 CCTV로 도둑이나 강도를 잡는 게 아니라 서로를 감시하는 일이 일상이 돼버렸다”며 “비단 연휴를 맞아 빚어진 일기는 하지만 피서철을 앞두고 이런 상황들이 되풀이될까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연휴 기간에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발생한 일인 것 같은데 상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숙박업소들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속초해경 음주운항 단속 강화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건의 음주운항 행위가 적발되자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봄철 농무기 특별단속에 나서 2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어민들은 혈중알콜농도 최고 0.131%의 만취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단속됐다.

해경은 지난해에는 8건, 2006년에는 6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단속했다. 해상교통법은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에서 선박과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는 사람은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명진 기자

축) 설악신문 창간 18주년

설악권 주민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 한 18년!

설악신문 창간 18주년을 축하합니다

모두가 잘사는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설악신문의 창간 1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밝고 희망으로 넘치는 고성을 만드는 원동력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대변지로서 아름다운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연합농장

대표 : 김창천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프리랜서 전망대 <43> 속초항 중고차 수출 상담 전시회 문제점과 과제

전시공간 확보·운송선 유치·시티투어 강화 필요

“바이어들, 자루비노 운항 중단·운송비 부담으로 동해·부산항 고려”

제2회 속초 국제 중고차 수출상담 전시회가 동춘항운의 자루비노 운항 중단이란 악재 속에서도 차량 판매 대수 면에서 전년 대비 1백27%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 또한 만만치 않음을 드러냈다.

동춘호의 예고 없는 자루비노 운항중단이 가져 온 여파가 컸다.

러시아 바이어들과 셀러들의 참가율이 낮았고 일부 바이어들이 동해항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 이유는 통관시간 지연(5~10일)과 요금부담으로 블라디보스토크항 이용을 기피하는 대신 통관시간이 빠른(1~2일 소요) 자루비노항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인센티브 적용이 되지 않는 동춘항운의 운송비 또한 부담이다. 지난해엔 전시차량에 대한 운송비가 1백달러나 할인됐으나, 이번 전시회엔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바이어들이 속초항 이용을 기피하고 상대적으로 운송비가 저렴한 동해항과 부산항 이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속초항이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비좁은 전시공간이다. 자루비노항 운항 중단에 따라 대한통운이 제3야적장(제2전시장)에 컨테이너를 적치해 전시공간이 부족하다.

따라서 속초시는 상설전시장을 300대 이상 규모로 확대하고, 신규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5백대 이상 규모의 별도 전시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전시회에 출품된 차량의 선적 운송도 문제다. 동춘항운이 협력업체 차량을 우선적으로 선적해 상담전시회 중 거래된 차량의 선적기일이 지연되고 있다.

중고차 수출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됨

에 따라 속초시가 별도의 운송선을 유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속초시가 올해 처음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시티투어를 실시해 호응을 받았다. 하지만 바이어들을 위한 부대행사나 안내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바이어들을 위한 먹거리, 쇼핑 등 즐길 거리 홍보와 안내도 부족해 향후 시내 관광과 쇼핑투어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한 블라디보스토크 바이어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속초로 동춘항운을 이용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편하다. 블라디보스토크와 속초 간 항공노선이 있으면 좋겠다”는 반응도 보였다.

또한 이 바이어는 “행사시간 이후 고급음식점을 찾아 특색 있는 음식을 먹고 청바지와 신발 구매 등 쇼핑도 하고 싶었으나 장소도 모르고 통역도 없어 이용하지 못했다”며 “행사일정에 시내 쇼핑

투어 일정을 포함하고 통역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 바이어는 “전시차량 중에 흠집이 있는 차량이 있어 아쉬웠다”며 “질 좋은 차량을 전시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속초시는 오는 9월22일부터 4일간 제3회 중고자동차 수출상담 전시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오는 6~7월 중에 시장개척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장개척단은 현지 시장조사와 함께 중고차 실소유자를 대상으로 현지를 직접 방문해 홍보하기로 했다.

시는 또한 현지 재외공관과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 현지 기업체 등과 협의해 우량 바이어 발굴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아울러 속초시는 중고자동차수출조합과 협의해 오는 6월 중 중고자동차 수출 홈페이지를 구축해 인터넷을 통한 홍보와 판매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수영 프리랜서 기자

중고자동차 수출 ‘악재’ 불구 증가

제2회 국제중고자동차 수출상담전시회...26억 외화소득

속초시가 속초항 항만부지에서 개최한 제2회 국제 중고자동차 수출상담전시회에서 26억원 상당의 수출성적을 거뒀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지난 1일까지 4일간 속초시와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이 공동 주최한 국제 중고자동차 수출상담 전시회에서 248대가 계약돼 26억원 상당의 판매고를 올렸다.

이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1회 국제 중고자동차 수출상담전시회에서 계약된 195대 20억여원보다 130% 증가한 것이다.

시는 당초 이번 수출상담전시회에서 350~400대의 차량을 계약해 40억원의 외화소득을 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3월 31일 뉴동춘호의 러시아 자루비노항 운항 중단 여파로 예상보다 적은 바이어가 참석하는데다 항로운항의 불안으로 다소 거래가 주춤해 당초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시는 다행히 지난달 28일부터 화물선에 한해 자루비노항로가 정상



제2회 국제중고차 수출상담 전시회에 참신한 러시아 바이어들이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운항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 많은 거래가 성사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6~7월경 러시아 현지에서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현지 시장조사 및 신규 바이어를 발굴하고, 오는 9월 개최되는 제3회 수출상담전시회에는 러시아 현지의 실소유주가 직접 속초에 와서 차량도 구입하고 관광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또 중고자동차 수출의 호조로 전시공간이 부족하자 별도로 항만부지 7,000평을 추가 확보해 상설전시장으로 활용하고, 농공단지 인근 1만평 부지에 전시판매장을 비롯한 성능검사장, 차량 정비, 운송, 세차, 부품업 등이 집결된 중고자동차 수출유통물류센터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명진 기자

올해말까지 ‘농산물이력추적제’ 등록 신청

고성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서학원)은 지난 9일 농산물의 생산,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올해말까지 ‘농산물이력추적제’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산물이력추적 등록제도는 농산물

의 생산에서 유통, 판매단계까지 관련된 정보를 기록해 농산물의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농산물을 추적해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등록 인증업

체 대상 농산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유통경로를 확보하게 된다.

고성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 제도가 정착되면 생산 유통기간 중에 발생하는 불량 농산물의 차단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신뢰가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재환 기자



어민들 풍어 안전조업 기원

속초수협 풍어제 거행

속초수협이 지난 8일 풍어제를 열어 풍어와 안전조업을 기원했다.

이날 오전 11시 수협 2층 어업인교육장에서 열린 풍어제에는 진영만 조합장과 송훈석 국회의원 당선자, 채용생 시장, 어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날 제례는 진영만 조합장이 초헌관, 이돌암 속초오징어채낚기선주협장이 아헌관, 민병기 속초수산업경영인협회장이 종헌관을 각각 맡아 봉행했다.

어민들은 이날 풍어제를 계기로 조업부진의 시름을 떨쳐버리고 풍어로 어촌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기를 기원했다.

진영만 조합장은 “올해는 기름값 부담에다 풍어에 이어 잡아마져 잡히지 않아 어민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며 “풍어제를 계기로 고기가 많이 잡혀 어민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고명진 기자

양양 제2농공단지 내년 상반기 착공

81억 들여 포월리에...주민들 "악취 해소방안 마련" 요구

양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제2농공단지... 양양읍 포월리로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빠른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간다.

군은 지난 2일 포월리 마을회관에서 사업 설명회를 갖고 군비 50억원과 국비 22억원 등 총 81억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공사에 앞서 2차 주민설명회를 갖고 포월리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뒤, 문화재 지표조사와 교통영향평가, 부지매입 등의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포월리 주민들은 이날 설명회에서 "현재 포월농공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설치돼 오폐수 방류 위험은 사라졌지만, 삼성키토택과 명진수산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다"며 "친환경적인 제2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악취 문제 해소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은 이에 대해 "제2농공단지는 굴

뚝 없는 산업들을 유치한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사전 분양 조건도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강화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해 12월 농촌공사에 타당성을 의뢰하고 원주지방환경청에 사전입지를 문의한 결과, 포월리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토대로 포월농공단지 주변에 제2그린농공단지 조성에 나서고 있다. 김주현 기자



지난 6일 북한화물선 남흥호가 올해 처음으로 속초항에 입항했다.

북한 화물선 속초 입항 조개류 가리비 등 선적

북한 화물선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속초항에 입항했다.

지난 6일 오전 가리비 등 조개류 34톤을 실은 292톤급 북한 화물선 남흥호가 입항했다.

북한 화물선의 속초항 입항은 올해 처음으로 지난 7일에도 또 다른 북한 화물선이 수산물을 싣고 속초항에 입항했다.

지난 2004년 5월 남북간에 체결된 해운합의서에 따라 북한 선박이 입항할 수 있도록 지정된 속초항에는 지난해 8월 가리비 14톤을 실은 화물선이 첫 입항한 것을 시작으로 모두 46차례에 걸쳐 화물선이 들어왔으며, 북한산 송이 270톤과 조개 33톤이 수송됐다. 고명진 기자 mjg0051@hanmail.net

개별주택가격 고성 하락·양양 상승

고성 3175억원, 양양 2915억원...고성 최고가 5억8천여만원

양양 최고가 다가구주택 4억5천여만원

올해 고성군의 개별주택가격 총가액은 지난해보다 0.76% 감소하고, 공동주택 가격은 1.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양양군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총가액이 각각 2.15%, 1.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와 고성·양양군은 올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을 지난달 30일 결정 공시하고, 이달말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고성 = 군의 올 1월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상용건물내 주택)은 8,830호로 총가액은 3,175억원으로, 지난해와 견줘 0.76% 감소했다.

최고가는 토성면 천진리의 4층 다가

구주택(건물연면적 739.69㎡, 대지 1,052㎡)으로 5억8,400만원으로 공시됐다. 단층주택으로는 간성읍 신안리에 있는 주택(건물연면적 137.61㎡, 대지 848㎡)이 4억4,400만원으로 공시됐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은 1,748호로 총 가액은 924억8,0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1.1% 상승한 것이다.

최고가는 거진 송포리의 오션상패빌 오렌지(102동)동 10층~15층으로 2억 1,600만원이다.

△양양 = 군의 올 1월1일 기준 개별주택은 7,465호로 총가액은 2,915억원으로 결정 공시됐다. 이는 지난해 7,419호 2,853억원보다 주택수는 46호,

총가액은 61억8천여만원이 상승(2.15%)한 것이다. 1주택당 평균가격은 54만3천원이 증가했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3,997호, 하락한 주택은 2,563호로 나타났다.

개별주택 최고가는 양양읍 서문리 주공아파트 앞 다가구 주택(건물 657.47㎡, 대지 1,292㎡)으로 4억5,300만원에 공시됐다. 최저가는 서면 장승리 목조주택으로 67만원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은 3,903호로 총가액은 1,31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가는 양양읍 청곡리 일심상스빌 아파트 85㎡(32평형)로 9,200만원이다.

김주현·이용수 기자

도민체전 성공개최 결의

음식업 고성지부·여성농업인연합

음식업중앙회 고성군지부(지부장 정문식)는 지난 6일 오후 2시 고성문화의 집 3층 대강당에서 음식업 대표 및 종업원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생교육을 실시해 철저한 음식 위생관리를 도민체전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결의했다.

이에 앞서 한국여성농업인 고성군연합회(회장 임선화)는 오전 11시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회의를 열어 도민체전에서 급수봉사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이용수 기자 ellan92@goseong.org

http://www.k1.ac.kr

“경동대학교 취업률 1위”

- '04~'07년도 일반대학 중 취업률 1위 대학으로 선정 (교육인적자원부 발표)
- '07년 고등교육기관 취업통계조사 신뢰도 우수모범대학 선정 (한국교육개발원 인정)
- 7년 연속 95% 이상의 취업률 달성

관광학부 관광경영학·관광통역학·호텔경영학·외식사업경영학
 사회복지경영학부 사회복지경영학·경영학
 경찰경호학부 경찰행정학·경호비서학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컴퓨터공학·멀티미디어통신공학
 건축토목공학부 건축디자인학·건축공학·토목환경공학
 유아교육과 / 중등특수교육과 / 스포츠마케팅학과
 한국어교원과 / 디지털디자인학과 / 해양심층수학과
 안경광학과 / 작업치료학과

● 대표 전화 (033) 631-2000 ● 입학 상담 (033) 6390-114, 119 ● 팩스 (033) 631-9542
 ● 대학 주소 (217-600) 강원도 속초시 속초우체국 사서함 제57호 ● http://www.k1.ac.kr



취업사관학교
 경동대학교 7년간 취업률
 2007년 → 95.0%
 2006년 → 95.4%
 2005년 → 95.5%
 2004년 → 94.9%
 2003년 → 98.2%
 2002년 → 95.3%
 2001년 → 98.3%

취업사관학교 경동대학교

보도자료

2007.11.16(금)

교육인적자원부

정책홍보담당관실 ☎ 2100-6035

문의처 교육인적자원부 통계정보팀 (☎ 2100-6225) 과장: 김환식 담당: 이인철, 이세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 3490-0232) 소장: 김정환 담당: 임우남, 장민혜

200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1. 목적
 ○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연계정보제공
 ○ 인적자원정책의 수립·추진에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2. 기준일 및 대상
 ○ 조사 기준일: 2007년 4월 1일
 ○ 조사대상: 376개 대학 및 142개 일반대학원 / '06.8월과 '07.2월 졸업자 및 56만명
 3. 조사항목(9개 항목)
 ○ 취업구분(취업자, 전직자, 입대자, 미취업자, 취업불가능자, 미성, 전공일치여부, 취업경로, 직업명, 직업분류, 산업분류, 회사명, 회사구분, 근무지

2007년 11월 9일 전국대학 취업통계 신뢰도 검증 우수모범 대학으로 선정 (한국교육개발원 인정)

■ 그룹별 취업률 상위 학교 (그룹: 1,000명 미만)

취업률	학교명
90% 이상 ~ 100% 미만	경동대학교, 남부대학교, 영신대학교, 을지대학교, 중앙대학교, 진주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그룹별 순수 정규직 취업률 상위 학교 (그룹: 1,000명 미만)

취업률	학교명
70% 이상 ~ 100% 미만	경동대학교, 남부대학교, 동원기술대학교, 목포대학교, 제주대학교, 을지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2007년도 경동대학교 취업률

학부(과)	졸업	취업	장업	전직	군대	기타	미취업	순수취업률	총취업률
관광학부	223	198	1	3	1	8	12	90.9%	94.4%
사회복지경영학부	119	107	0	3	1	4	4	93.0%	96.5%
컴퓨터미디어공학부	111	94	1	4	0	4	8	88.8%	92.5%
건축토목공학부	120	108	0	5	2	0	5	95.6%	95.8%
디지털디자인학과	50	46	0	1	0	1	2	93.9%	95.9%
유아교육과	19	19	0	0	0	0	0	100.0%	100.0%
계	642	572	2	16	4	17	31	92.3%	95.0%

기획취재/설악권통합 어떻게 볼 것인가 ④

통합문제 취재배경과 속초지역 반응

“통합 논의, 합리적 판단 전제 진행돼야”

4·9 총선 계기 수면 위로... 통합논란 지역 현지 취재·여론조사도

2008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 지원 대상 신문사로 선정된 설악신문은 이번 호부터 '설악권 통합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로 속초·고성·양양 3개 시·군의 통합 문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했다.

모두 5회에 걸쳐 연재되는 이번 기획취재에서는 통합문제를 바라보는 설악권 3개 시·군 주민들의 시각과 입장을 들어보고, 이어 통합과 관련해 자치단체간 합의와 갈등을 반복하고 있는 여수·순천·광양지역의 광양민권 통합문제를 현지 취재로 진단해본다.

또 통합을 놓고 자치단체와의 갈등을 넘어 주민의 대변기관인 의회까지 나서 갈등을 빚고 있는 청주시와 청원군간의 통합문제도 현지 취재로 보도하고, 마지막 순서로 설악권 주민들의 보다 정확한 생각을 알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보도하게 된다. 여론조사는 주민여론 수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인구 비율과 상관없이 속초·고성·양양 3개 지역 모두 각각 500명씩 총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글 쓰는 순서

- ① 통합문제 취재배경과 속초지역 반응
- ② 통합에 대한 고성과 양양지역 반응
- ③ 통합무산 진통 여수·순천·광양
- ④ 통합문제로 갈등 빚는 청주·청원
- ⑤ 통합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 결과

통합문제 취재배경

지난 94년 속초시와 양양군을 대상으로 한 도·농 통합 무산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설악권 3개 시·군 통합논의가 지난 4·9 총선을 앞두고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총선 출마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각 방송사의 후보자초청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단골 질문메뉴로 등장했다.

또 설악신문이 보도(제851호)한 후보자 지면토론에서도 '시·군통합에 대한 입장과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 각 후보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통합에 앞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4·9총선 후보자들 전원 긍정 반응

후보들은 통합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광역행정의 효율성, 지역경제의 효율성 등을 장점으로 거론했다. 그러나 합리적인 판단을 전제로 한 통합논의 없이, 무조건 찬성 또는 무조건 반대라는 감정적인 대응으로 통합이 추진될 경우 서로간 반목만 커져 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후보들은 조금하게 통합시 한을 정하지 말고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하

고, 설악권 주민이 원하지 않는 강제적인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 94년 속초시와 양양군의 통합논의가 불거졌을 때 양양군의회가 통합 백지화를 요구하며 의정활동 중단에 들어가 파행을 빚는 등 두 지역이 한 때 통합문제로 진통을 겪기도 했다.

94년 5월 속초와 양양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합 주민의견 조사 결과 속초지역의 경우 조사서가 회수된 2만814세대 중 95.7%가 찬성했다.

그러나 양양지역은 조사서가 회수된 8,460세대 중 84%가 반대의견을 보여 통합이 사실상 무산되는 등 통합을 바라보는 두 지역 주민의 확연한 입장차를 보여주기도 했다.

지금은 세월이 흘러 통합에 대한 3개 시·군 주민들의 입장이 크게 완화됐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통합을 바라보는 지역주민들의 시각차는 존재하는 것으로 취재과정에서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이같은 입장 차이에서 벗어나 설악권이 관광·지역경제 활성화와 남북 교류 및 동북아 물류 전진기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이런 갈등을 극복하고 지금 당장 통합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속초지역 주민들은 통합문제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단지 선부른 통합논의가 또 다시 지역갈등을 부추길 수 있어, 조심스런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은 속초 중앙시장 모습.

속초지역 반응

지난 94년 주민의견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3개 시·군 통합에 대한 속초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단지 선부른 통합논의가 또 다시 지역갈등을 부추길 수 있어, 조심스런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는 4·9 총선을 계기로 통합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물밑에서 일고 있다. 이들은 어족자원 고갈과 관광경기 위축으로 인구가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설악권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통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2000년 인구 9만명을 돌파했던 속초시는 매년 1,000여명씩 인구 감소추세를 보여 지난 4월 현재 8만5,700여명으로 감소했고, 고성군도 계속되는 인구 감소로 3만명 붕괴 위기에 몰려 있다. 양양군도 똑같은 감소추세로 인구가 현재 2만8,000여명에 불과하다.

또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이 침체된 지역경기과 관광경기를 활성화시킬 핵심산업으로 평가받으면서 3개 시·군이 일제히 개발사업에 뛰어들면서 '물지마 증

북투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여기에서 서남해안권 개발 등으로 설악권 관광경기가 위축되는 등의 위기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3개 시·군이 주축이 돼 사계절 관광지 조성을 위한 통합 관광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설악권 지역경기 활성화 위해 필요”

특히 3개 시·군이 각자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속초시의 국제항만·물류도시 조성, 양양군의 문화·관광·교통 중심도시 조성, 고성군의 남북교류전진지 조성사업 등으로는 경쟁력이 없어, 3개 시·군의 거대 프로젝트를 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설악권 광역도시 탄생이 위기의 설악권을 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직원들 봉급도 제대로 맞추기 힘든 10~20%대의 낮은 재정자립도로는 상생의 지역경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어, '누군가는 이 문제에 불을 지펴야 한



지난 2006년 11월22일 속초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설악권행정협의회의에서 속초·고성·양양·인제 4개 시·군 단체장들이 손을 맞잡고 공동발전의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본보 2006년 11월28일자 783호 보도.

▷ 11면으로 이어짐

속초지역 대체로 긍정 반응... 일부 인사들 통합문제 논의

▷ 10면에서 이어짐

다'는 것이 통합논의 제기론자들의 입장이다.

일부 지역인사들이 민간 차원에서 최근 모임을 갖고 3개 시·군 통합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지역 인사들은 14년전 속초시와 양양군의 통합 자체가 무산된 아픔을 거울 삼아 3개 시·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통합과 관련한 여론수렴에 나설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이들은 통합논의 자체가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인내심을 가지고 민간 차원에서 토론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구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속초시의회 김성근 의원도 지난해 12월 제166회 2차 정례회에서 3개 시·군 통합문제를 공식 거론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속초시와 인근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을 독자 추진하고 있으며, 쓰레기소각시설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시설도 중·대용량 1기를 운영함이 효율적이나 각 자치단체가 소용량 시설을 독자 운영하고 있다"며 시설 중복투자에 따른 행정낭비를 꼬집었다.

또 "우리지역은 인구급감과 기간산업의 공동화 현상으로 혼자서는 존립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설악권 공동발전과 장래를 위해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위한 각 지역의 정치권·민간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기능이 점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명진 기자 mjg09051@hanmail.net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또 동우대학 사특환 교수가 자문을 담당합니다.



속초지역 주민들은 설악권 공동발전을 위해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청대산에서 바라본 속초시 전경.

인터뷰 / 김희철 속초상공회의소 부회장

“통합문제 대승적 차원에서 나서야”

김희철 속초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어족자원 고갈과 관광경기 위축으로 영북지역이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3개 시·군 통합논의가 이미 지난 4·9 총선에서 대두된 만큼, 이제는 통합문제에 누군가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앞장 서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부회장은 통합논의의 필요성으로 현재 3개 시·군이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해양심층수 개발사업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를 예로 들고, “통합이 성사될 경우 3개 시·군 중 입지조건이 가장 좋은 곳을 선정, 집중 투자하면 투자효율과 성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

고 제안했다.

또 “관광기반산업 취약으로 국내 관광객들이 설악권을 외면하면서 지역내 대부분의 상가들이 피서철과 단풍철 2개월 정도의 영업으로 1년을 버티는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3개 시·군으로 분산돼 있는 관광시설로는 경쟁력이 없어, 4계절 관광지 조성을 위한 광역화 통합논의 공론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3개 시·군은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해 주는 방식으로 통합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부회장은 끝으로 “혈연과 지연, 학연을 따지는 것 자체가 지역을 침체의 늪에 빠뜨리는 요소”라며 “행정과 기득권층은 지역발전을 위해 자기 기득권을 과감하게 타파하는 발상의 전환이 위기의 설악권을 구할 수 있다”고 했다.

고명진 기자 mjg09051@hanmail.net

영동지역(속초·고성·양양·강릉)최초 HACCP 인증 획득



(주)신신나라 설악송이포크



최고의 시설·최고의 품질 축산가공급식센터

설악의 자연 송이와 청정 양양의 돼지가 만났다... 설악지역 양양 양돈단지의 청정돼지를 독점공급받아 HACCP 인증을 획득한 최고의 시설에서 생산하는 설악송이포크의 맛을 중간유통 없이 우리지역에서 맛보십시오.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562-35 ☎(033)671-1503~5

공급처 : 학교·관공서·군부대, 농·축협, 정육점, 할인마트, 콘도, 호텔 등

외국인 여성 5명 양양의 며느리로 삼아

새마을운동양양군지회 지난 2일 '우리 며느리 맞이 합동결혼식' 감동

뜨거운 박수에 참았던 눈물 '주룩룩'

"한국에 와서 가정을 꾸리며 생활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는데 결혼식도 올려주고 모든 주민들이 축하해주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지난 2일 새마을운동양양군지회(지회장 김태호)가 도내에서 처음 마련한 '우리 며느리 맞이 합동결혼식'이 낙산프레아콘도 웨딩홀에서 양양주민들의 뜨거운 축하 열기 속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날 이덕희(41)·아일린(32, 필리핀), 김의열(52)·러브리(33, 필리핀), 전영남(43)·디엠 폭(26, 베트남), 서동일(51)·우춘영(36, 중국), 권혁근(45)·제인마틀리스(33, 필리핀) 등 5쌍의 부부들은 결혼행진곡에 맞춰 레드카펫을 걸어간 뒤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잉꼬부부로 살겠다'고 서약하며 부부의 연을 맺었다.

새신랑·각시로 단장한 이들은 하객으로 참석한 친인척과 300여명의 새마을회원, 지역주민들은 물론 이날 연휴를 맞아 양양에 놀러온 콘도 투숙객들까지 1천여명의 하객들이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보내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이수성 전 국무총리는 주례사에서 "어렵고 힘든 타향살이에도 가정을 화목하게 꾸리며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진정 인류 공동체의 행복과 평화 무엇인지를 전하는 전도사들이다"며 "지역주민들이 함께 해준 오늘 뜻 깊은 합동결혼식이 부부가 백년해로하는 기쁨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축하했다.

이날 그토록 바라던 결혼식을 올린 부부들은 많게는 9년에서 짧게는 지난해 연을 맺은 커플까지 사연도 많고 함께 살아온 세월도 다양했다. 그러나 웨딩



합동결혼식을 올린 5쌍의 부부들이 이수성 전 국무총리로부터 주례사를 경청하며 부부의 연을 맺고 있다.

마치를 울리며 출발한 5쌍의 부부들은 한결같이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며 해로하겠다는 굳은 맹세로 언약을 하며 하객들에게 화답했다.

윈이 넘어 장가를 든 새신랑 서동일씨는 "주민들 모두 이처럼 환대해주고 축하해주 감사의 보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

겠다"며 "오늘 합동결혼식을 주선해준 김태호 지회장님과 새마을회원 여러분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 앞으로 백년해로하는 것으로 은혜를 갚겠다"고 고마워했다.

김태호 지회장은 "먼 타국으로 와 어렵지만 착실히 살고 있는 이들이 우리 이웃으로 함께

행복하고 화목하게 가정을 꾸리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선하게 됐다"며 "이들의 앞날을 축하해주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앞드려 감사드리고 서로를 알뜰히 보살피며 행복하게 살아주시길 손모아 기원한다"고 축원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지역사회 관심·지원 '으뜸'

각계단체 후원·공연협찬 잇달아 행정적 지원한계 극복한 모범사례

이날 합동결혼식은 새마을운동양양군지회를 비롯한 사회단체와 주민 등 지역사회의 뜨거운 환대와 축하 속에 치러져 의미를 더했다.

우선 김태호 지회장 등 새마을회원들은 이번 결혼식을 기획하고 준비했으며, 이수성 전 국무총리의 주례를 주선했다. 새마을운동 도지부는 웨딩복을, 양양군지회는 식전공연과 예식장, 하객식사, 웨딩사진을 맡았다. 특히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음식과 폐백을 도맡아 하며 참석하지 못한 신부 측의 친인척을 대신했다. 낙산프레아콘도는 예식홀과 식당, 조

리실까지 무료로 제공했고 낙산사 정념주지스님은 이날 결혼한 부부들의 신혼여행 숙박권 등 결혼식에 들어가는 물품들을 지원했다.

또 양양·서광·하조대농협, 속초양양축협, 신흥유통, 산들비빔식품, (주)두산, 태양수산, 보강건설, 양양임업, 농협양양군지부, 솔비치, 고성 썬밸리 등 지역단체 및 기업들이 십시일반 협찬해 작지만 큰 도움을 줬다.

속초시청과 속초예총에서도 공연팀을 지원해 이날 합동결혼식의 흥을 돋우며 즐거운 자리를 마련, 하객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았다.

회원들과 함께 대사를 치러낸 김광래 양양군새마을협의회장은 "지역사회의 정성만 모아진다면 앞으로 더 어려운 문제들도 쉽게 해결하며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동안 보이지 않은 곳에서 지원을 해주고 계신 양양 신흥유통 임석용 회장을 비롯한 많은 후원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고마워했다.

이번 합동결혼식은 늘어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행정적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며,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들

에게 희망을 전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날 웨딩카를 제공한 김관호 양양군번영회장은 "급속히 다문화화되고 있는 지역사회가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보살피는 모습에서 우리지역의 미래 희망을 읽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우리 이웃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에 나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이번 합동결혼식을 성황리에 치러낸 새마을운동양양군지회 회원들이 결혼식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속초예총 무용협회 회원들이 합동결혼식 식전 행사에서 부채춤을 추며 흥겨운 잔치분위기를 이끌었다.

속초고 배구부 저력 보여줘

전력 약화 불구 전국 대회 준우승 ... 맹훈련으로 하반기 전국대회 우승 노려

지난 3월 춘계 전국남녀중고 배구대회에서 예선 탈락 수모를 겪은 속초고 배구부가 지난달 30일 2008 연맹회장배 전국 남녀중고배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속초고 배구부는 지난해 전국 대회 2연속 우승의 주역이었던 레프트 강선구(명지대 1년)와 리베로 조국기(명지대 1년)의 졸업으로 전력이 크게 약화됐지만, 5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아깝게 우승을 내줌으로써 저력을 보여줬다.

이번 경기에서 남성고는 2m대의 장신 선수를 보유하고, 모두 지난해부터 호흡을 맞춰온 선수들로 최강의 전력을 보였다. 반면 속초고는 지난해 전국 대회 우승의 주역이었던 주력 멤버가 두명이나 빠졌으며, 위기 순간을 극복할 마땅한 해결사조차 없는 약점을 안고 출전했다.

속초고는 그러나 이처럼 눈에 보이는 약세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달리 이번 대회에서 훌륭한 경기력을 선보였으며, 특히 강점인 조직적 수비에 이은 속공 플레이는 최고 수준을 보임으로써 앞으로 남은 두 개의 전국 대회에서 우승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했다.

속초고 배구부 조길현 감독은 "지난 3



속초고 배구부 선수들이 지난 9일 학교 체육관에서 조길현 감독(오른쪽)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월 춘계 전국남녀중고배구대회 예선에서 무너지는 수모를 겪었으나, 리베로 최두선 선수 등 새로 구성된 선수들이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팀에 성장 가능성이 다분한 선수들이 많은 만큼 훈련을 계속하면 하반기에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전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올해 남은 전국 대회는 6월 충북 옥천에서 열리는 제42회 대통령배 전국 남

녀 중고배구대회와 10월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제89회 전국체육대회 등 2개다.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12명의 엔트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속초고 배구부(현 11명)지만,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선수들과 이들을 지도하는 코치진의 부단한 노력이 조합된다면 앞으로 있을 대회는 물론 내년 대회까지도 좋은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이우철 기자

고성 장애인의 날 행사 푸짐 500명 참가...레크레이션 등



고성군장애인연합회가 지난 7일 고성종합체육관에서 제28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고성군장애인연합회(회장 김명철)가 지난 7일 고성군종합체육관에서 500여 명의 장애인가족과 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8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시각장애인, 농아인, 지체장애인 등 3개의 협회에서 각 5팀씩 총 15팀이 참가한 장기자랑도 열려 노사연의 '만남' 노래를 수화로 공연한 농아인협회 팀이 금상을 수상했다.

이어 2008 전국장애인가요제 대상을 수상한 최여름씨(시각장애인)가 이선희의 '아름다운 강산'과 김경호의 '나의 사랑 천상으로'를 불러 장애인가족들로부터 큰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아이코리아(대표 홍봉선) 회원들은 이날 비빔밥과 떡, 과일 등 직접 만든 음식을 중식으로 제공해 고마움을 샀고, 율곡부대 53연대에서도 행사 영상제작에 도움을 줬다.

이용수 기자

『설악 로네오거리 조성사업』 착공

'08. 5월 ~ '09. 12월

전기·통신 지중화, 가로수 이식, 상·하수도 정비공사 등

살고싶은 도시, 살맛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설악 관광·쇼핑거리」조성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속 초 시

프리랜서 칼럼

지역말살 교육정책 중단부터 요구해야



엄경선 프리랜서기자
투어설악닷컴 대표

지난 3월말 속초시가 애향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우수 중학생 중 상위 3% 이내 학생이 지역고교를 지원하면 고등학교 3년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지역 고교의 명문고 육성과 인재육성사업에 교육경비를 우선 지원한다는 기사를 접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교육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세워 지원한다는 게 너무나 반가운 일인데 사실 내막을 훑어보면 그리 유쾌하지 못하다. 학력 제일주의의 명문고 육성과 인재육성사업이 속초지역의 교육위기 해결의 대안이 되지 못하며, 이 사업으로 다수의 학부모와 학교가 속초시의 교육지원에서 소외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 전부터 인재육성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켜야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투어 애향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냉정한 평가가 없다. 우리와 경우는 다르지만 전라북도는 1982년부터 매년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 300여명에게 총 30여억원의 학비를 지원했지만 졸업생 중 1년 정기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은 12%에 불과하고, 월 1만원씩 수혜장학생들이 조성하기로 했던 학우회 장학금도 회비가 안모여 흐지부지되었다고 한다. 지역은 지나

치게 엘리트 인재에 대한 강박관념에 빠져있는데, 다양한 사고와 가치가 존중되는 시대에 애향심 요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짝사랑에 불과하다. 엘리트 학생에게 적지 않은 장학금을 내놓고는 그 이상으로 지역에 헌신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정작 학교를 졸업해 사회에 나가면 지역사회와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다.

지금 속초지역 4개 중학교에서 타 지역 고교로 진학한 학생은 2006학년도 57명, 2007학년도 90명, 2008학년도 132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최근의 지역인재 유출은 속초교육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에서부터 시작된 특목고 열풍이 이곳 번방까지 불어 닥친 결과이다. 노무현 정권 때도 고교 서열화와 내신 무력화 등으로 대학들이 특목고를 탈법적으로 편들더니, 새로 들어선 이명박 정권은 한술 더 떠 아예 거추장스러운 모든 규제를 풀고 교육을 자본주의 시장에 내던져 무한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지역에서 과목당 1백만원이 넘는 특목고 과외가 성행하고 특목고 대비 학원은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교육이 아니라 밀립속의 생존싸움이며, 아이들의 공부 경쟁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과 시간의 다툼이다.

이명박 정권이 공약한 교육정책대로라면 더 많은 특목고가 생겨나고 교육평준화는 무너져 지역간, 계층간 교육 수준

차는 점점 더 벌어질 것이다. 속초지역도 인재유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럴 바에야 속초도 명문고 육성보다 특목고를 신설하는 게 더 현실적인 대안일 지도 모른다. 하지만 언감생심이다. 특목고는 설립에만 수백억이 들어가고 운영비도 엄청나다. 지금 경제력을 앞세운 특정 지방자치단체만이 특목고 설립을 추진하면서 교육시장을 독식하고 있다. 한때 이름을 날렸던 인근 강릉이나 춘천의 명문고도 모두 몰락한 마당에 훨씬 인적 물적 자원이 열악한 속초에서 명문고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사실 명문고란 우리나라 학맥과 인맥이 얽혀 만들어진 허상이다. 실력보다는 간판이 더 앞서던 시대의 이야기인데 우리사회는 아직도 이에 미련을 두고 있다. 속초지역 고등학교가 명문고의 기준인 대학입시에서 빛을 본 때가 언제인가를 따져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예전의 명문고가 몰락한 평준화의 시절이었다.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인 1980년대는 대학 본고사를 대신해 학력고사가 생겨나고 과외가 금지되고 고교내신이 대학입시에 처음으로 반영됐던 시절이었다. 당시에는 고등학생이 학교수업을 마치고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서 야구를 하니 그제서야 초등학교 학생 수업이 끝나는 날도 있었다. 그럼에도 대학 본고사 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하는 대학에 대거 진학했으며, 이에 힘입어 타지로 진학하려던 중학생들도 지역고교로 진학하게 됐다. 평

준화와 학력고사 실시를 계기로 그동안 명문고 바람에 소외된 지방학교들이 빛을 본 것이다. 그 이후 특목고 신설과 내신 무력화, 수시전형의 확대 등으로 다시 지방학교들이 위축되고 특목고가 새로운 명문고로 부상하게 됐다.

명문고와 인재육성에 얽매이면 오히려 지역교육은 더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 다수에게 돌아가야 할 교육예산이 특정인과 특정학교에 편중되어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불필요한 사업으로 시민의 혈세가 흘러나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가난한 지역 학부모와 지원에서 소외된 학교들은 더 절망할 수밖에 없다.

속초시가 내세운 명문고 육성과 인재육성 시책의 문제점은 지역교육 위기의 원인인 교육정책의 파행을 그대로 놔두는 잘못된 환상을 쫓고 있다는 데 있다. 지역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교육정책이 문제라면 잘못된 교육정책부터 바꾸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을 우회하거나 편승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숲 전체가 병들었는데, 우리 마당의 나무에만 양분을 준다고 그 나무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자본주의 시장에 내팽겨진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역의 교육도 살아날 수 있다. 사교육도 없고 입시지옥이 없어도, 오직 평준화 교육만으로 세계적인 교육강국을 이룬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도 교육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 허망한 명문고 육성 시책을 추진하느니 전국에서 힘없고 가난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서서 인재유출을 부추기고 지역교육을 말살하는 교육정책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이다.

“속초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소야벌개발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하며 채용생 시장의 독단행정을 시민들의 힘으로 막아냅시다!

속초시가 기어이 주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소야벌 개발이란 억지사업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속초시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대화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장 쫓기듯 급하게 하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협의를 하자고 호소도 해봤습니다. 지역주민의 대표인 시의원과 도의원, 국회의원까지 나서 신중한 개발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속초시는 끝까지 주민의사를 왜곡 호도하고 무시하며 독단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제 그 책임을 시장에게 철저히 물을 것입니다.

속초시는 철저히 주민들을 기만했습니다!

속초시는 소야벌개발사업을 토지개발공사와 밀실에서 협약을 맺고 몰래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알려진 후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한편으로는 주민들과 대화를 한다면서 뒤로는 소야벌개발을 위한 행정절차를 착착 밟아왔습니다.

속초시 발전을 위한 자문위원회가 지난 4월 25일 속초시와 주민들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으나, 그 전날 이미 국토해양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야벌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을 의결했습니다. 채용생 시장은 주민들과 대화를 위해 마련된 그 자리에서 “소야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됐다”며 대화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미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해놓고는 주민

들과 무슨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속초시의 기만적 태도를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타당성이 결여된 무모한 소야벌개발사업은 중단돼야 합니다!

매년 1,000명씩 인구가 줄고, 아파트는 남아돌고, 청초호유원지는 빈터로 방치되다시피 하고, 대포항 개발에 대포제2농공단지까지 조성되고 있는데, 왜 대규모 부지가 필요합니까.

북부권의 공동화를 우려하면서 재래시장과 도심지 상권의 붕괴와 위축을 가져올 게 불 보듯 뻔한 소야벌 개발사업을 도대체 왜 추진하려고 합니까.

주민들과 사전 협의도 없이 주민들의 생계가 달린 소중한 토지를 왜 강제로 빼앗아 토지공사에 넘겨 땅장사를 시키려고 합니까.

시민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채용생시장의 독단을 시민들의 힘으로 막아냅시다! 무모한 소야벌 개발의 피해는 결코 소야벌 토지소유자들에게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속초시민 모두가 안고가야 할 짐입니다. 더욱이 속초시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속초시가 지금 당장 소야벌 개발사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주민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호소합니다.

(가)속초시정바로잡기범시민연대 · 소야벌강제수용반대투쟁위원회

TEL. (033)636-4949

33일간 펼쳐지는 예술의 향연

속초예총 제19회 종합예술제 22일~6월23일 개최

8개 단체 16개 프로그램 마련

속초예총이 주최하는 제19회 속초종합예술제가 오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속초문화회관과 청초호 유원지 일대에서 개최된다.

속초예총 소속 8개 협회가 참가하는 이번 종합예술제는 22일 저녁 6시30분 속초문화회관 대강당 로비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6월 23일까지 33일간 16개의 행사가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창립한 무용협회가 처음으로 종합예술제에 참가해 한층 다채로운 행사로 마련될 전망이다.

△사진작가협회는 22일부터 27일까지

신전시실에서 제2회 정기 전시회를 연다. 회원들이 주제에 구애 없이 일상과 자연을 소재로 자유롭게 촬영한 작품을 발표한다.

△연극협회는 강원연극제에 출전했던 두 작품을 대강당 무대에 올린다. 극단 굴렁쇠는 22일 오후 7시30분 대상 수상작인 '전설의 달밤, 화진이 화진이'를, 극단 청봉은 30일 오후 7시30분 은상 수상작 '꽃 밥'을 각각 공연한다. 또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대강당에서 강원도 청소년연극제를 개최한다.

△문인협회는 24일 오후 2시 청초호 유원지 일원에서 지역 청소년들과 주부들이 참가하는 설악학생백일장과 설악

주부백일장을 개최한다.

△미술협회는 24일 오후 2시 청초호 유원지에서 설악주부미술 한마당과 설악학생미술실기대회를 연다. 속초서우회는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을 위해 무료 료로 가훈과 고사성어를 써준다.

또 6월10일부터 15일까지 신전시실에서 제33회 정기전시회를 열고, 같은 기간 구전시실에서 일본 요나고시, 사카이 미나도시, 중국 훈춘시, 대만 대동현, 미국의 그레샴시 어린이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국제아동미술교류전을 연다.

△연예예술인협회는 6월15일 지역 청소년들이 끼를 발산하는 제19회 설악청소년 가요·댄스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예선은 24일 오후 2시 소극장에서 열린다.

△무용협회는 25일 오후 7시30분 대강당에서 첫 정기공연을 가진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색적인 공연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국악협회는 6월 13일 오후 7시30분 대강당에서 정기 발표회를 연다. 지역에서 내로라하는 국악인들과 풍물패가 출연해 고정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할 공연을 보여준다.

△음악협회는 6월 14일 오전 10시 지역 청소년들의 음악 경연인 설악청소년 음악콩쿨을 개최하며, 23일 오후 7시에 수상자들을 중심으로 앙코르 공연을 선보인다.

속초예총 한기학 회장은 "매년 주민들과 함께 치러지는 종합예술제인 만큼 많은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우철 기자

극단 굴렁쇠 제25회 강원연극제 대상

'전설의 달밤, 화진이 화진이'로...극단 청봉 '꽃 밥' 은상

극단 굴렁쇠(대표 김귀선)가 '전설의 달밤, 화진이 화진이'로 제25회 강원연극제 대상을 차지했다.

극단 청봉(대표 김태영)도 '꽃 밥'으로 은상을 수상, 이번 연극제에 출전한 속초지역 2개 극단 모두 수상하는



제25회 강원연극제 대상팀인 극단 굴렁쇠의 공연 모습.

패거를 이뤄냈다.

굴렁쇠는 오는 24일부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는 제26회 전국연극제에 강원도 대표로 참가한다.

강원도예총과 연극협회 도지부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속초에서 개최한 이번 강원연극제에는 속초, 춘천, 원주, 강릉, 원주, 태백, 삼척 등지에서 11개 극단이 참가했다.

금상은 춘천 극단 연극사회의 '금 따는 콩밭', 태백 극단 동그라미의 '오월엔 결혼할거야'가 각각 수상했으며, 은상에는 원주 극단 산야의 '토끼와 포수', 속초 극단 청봉의 '꽃 밥'이 각각 선정됐다. 동상은 삼척 극단 신예의 '꽃잎'이 수상했다.

희곡상은 '금 따는 콩밭'을 쓴 극단 연극사회 변유정씨가, 연출상은 대상팀인 극단 굴렁쇠의 김귀선씨가 수상

했다. 최우수 연기상은 극단 동그라미의 윤선화씨, 우수 연기상은 극단 산야의 서현주씨와 극단 굴렁쇠의 추예인·석경환씨, 연극사회의 윤승균씨가 각각 차지했다. 무대예술상은 극단 청봉의 정봉재씨가 받았다.

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장(위원장 장규호)은 심사평에서 "대상 수상작인 '전설의 달밤, 화진이 화진이'는 다소 진부할 수 있는 지역 설화를 현대인의 감성에 맞게 새롭게 구성한 점과 박진감 넘치는 빠른 템포의 상황 전개가 돋보였다"고 평했다.

대회를 주관한 신오일 속초지부장은 "속초를 대표하는 극단이 모두 수상하게 돼 감격스럽다"며 "굴렁쇠의 작품 구성력과 연기력은 이미 입증된 만큼, 전국연극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 대상팀에는 500만원, 금상 300만원, 은상 200만원, 동상 1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됐으며, 개인상 수상자에게도 50~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이우철 기자

양양지역 문화적 갈등 풀어줘

제1회 양양종합예술제 폐막...전통과 현대 어우러져

양양예총이 주최한 제1회 양양종합예술제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축제로 승화되며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갈등을 풀어줬다.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개최된 양양종합예술제는 미술협회 창립전을 시작으로 현산 청소년음악콩쿠르, 청소년 백일장 수상작 전시회, 사생공모전, 청소년 음악회, 지역출신 젊은 예술가 공연, 국악협회 정기발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지역출신 젊은 예술가 공연은 양양출신의 예술가들이 모처럼 한 자리에 모여 품격 높은 예술의 진수를 보여줬으며, 전통 국악공연에서부터 청소년 음악회까지 나이와 세대를 넘나드는 공연으로 지역화합에 큰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다.

최종덕 양양예총회장은 "제1회 양양종합예술제는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지역의 밝은 미래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희망을 준 것으로 자신한다"며 "이번



양양예총 종합예술제에서 가장 주목받은 공연으로 평가되는 지역출신 젊은 예술가 13인 공연 무대가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종합예술제를 발판 삼아 양양지역의 문화예술이 지역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로 다가섰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김명철 초대 고성군장애인연합회장
“장애인 단체 한 목소리 낼터”**



“장애인들의 재
활 의욕을 고취시
켜 사회참여를 적
극 유도해 나가겠
습니다.”

지난 7일 취임한 김명철 제1대 고성군장애인연합회장(55, 사진)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장애인 단체가 하나로 뭉치게 돼 감개가 무량하다”며 “앞으로 장애인 정책이 확대되도록 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고성지역은 현재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등 3개 장애인 단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등록 장애인수는 2,000여명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그 동안 협회별로 각자의 목소리를 내다보니 행정지원 뿐 아니라 여러 봉사단체의 도움에도 어려움이 많았다”며 “연합회 구성을 계기로 고성지역의 모든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잡아 갈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특히 “고성에는 아직 장애인복지관도 없는 실정이다”며 “연합회가 구성된 만큼 올해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해 장애인들이 보다 많은 복지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중학교 2학년 시절 덕장에서 놀다 다리 골절과 무릎 연골이 파괴되는 사고를 당해 지체장애인 3급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지체장애인 고성지부장을 겸직하며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김 회장은 “장애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내 자신이 장애인이 돼서야 깨닫게 됐다”며 “남은 여생을 장애인들에게 삶의 의욕을 불어 넣어주는데 바치고 싶다”고 말했다. **이우승 기자**

제27회 스승의 날 교과부장관상 수상 강혜숙 교사

동요로 아이들에게 맑은 심성 심어줘

24년간 8개교서 중창·합창단 운영

학생들에게 올바른 심성을 심어주기 위해 20년 이상을 동요 전파에 심혈을 쏟아 온 속초 청대초등학교 강혜숙(45, 사진) 교사가 제27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을 수상한다.

강 교사는 교직 생활 24년간 도내 8개교를 순회하며 중창·합창단을 구성해 학생의 소질 계발을 위한 특기 지도와 동요 지도를 통한 인성 함양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는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은데 저에게까지 큰 상이 주어져 영광스러운 한편 죄송스러운 마음이 든다”며 “사교육에 밀리지 않는 공교육을 만들라는 의미로 알고 더욱 열의를 갖고 가르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 교사는 지난 85년 첫 근무지인 강릉 주영초 재직 시절부터 중창단을 지도해왔다. 사천초 근무 당시에는 중창단원들이 강릉KBS 어린이중창단으로 활동하



고, 어린이 동요프로그램인 ‘노래는 내 세상’, ‘열려라 동요세상’ 등의 타이틀곡을 부르기도 했다.

94년 영월 모운분교장에 근무했을 때는 전교생 6명으로 중창단을 구성해 폐광지역 아동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KBS 강릉방송국 연말 동요프로그램에 참가해 우수상을 수상한 기쁨을 맛보기도 했다.

이외에도 여러 시골 학교에서 중창단과 합창단을 이끌며 각종 동요대회에서 입상한 공로로 총 7회의 도 교육감 표창을 수상했으며, 2004년에는 강원도음악교육위원회가 제정한 제4회 금강아동음악상을 받기도 했다.

“노래를 부르면 집중력이 강화되고 발음 교정도 되며 긍정적인 사고도 갖게 됩니다. 특히 중창단이나 합창단에 참여할 경우 사회성이 길러져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커지게 돼요.”

강 교사의 노래 예찬론이다. 그는 최근 동요가 가요에 밀려 어린이들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동요는 선명하고 경쾌한 리듬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뛰어노는 어린이들의 생활 전부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어릴 때는 당연히 가요보다 동요가 정서에 맞아요.”

강 교사는 강릉 출신으로 춘천교대를 졸업했으며, 가족은 남편 최희규씨(온정초 교감)와 2남.

이우철 기자

3년째 교동초교 어린이날 잔치 마련 김남국씨

“아이들에게 용기와 희망 심어줬으면”



양양 거평프레아콘도에서 마트를 경영하고 있는 김남국씨(45, 사진)가 3년째 교동초교 학생들에게 어린이날 잔치를 베풀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교동초교 운영위원을 지낸 그는 2006년부터 매년 어린이날을 맞아 2천여명의

학생들에게 과자와 음료를 나눠주며 즐거운 자리를 마련해주고 있다.

올해도 거르지 않고 어린이날 잔치를 열어준 김씨는 “어린이날 단 하루만이라도 모든 학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됐다”며 “더 많이 지원해주지 못해 늘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강릉이 고향인 그는 속초에서 생활한 지 19년째로, 재속 강릉출신 모임인 ‘속초사랑 푸른연대’ 사무국장도 맡고 있

다. 속초사랑 푸른연대는 860명의 회원으로 구성됐으며, 속초지역의 결식아동들을 위한 점심값 지원사업을 다년간 펼쳐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20명의 결식아동을 지원했으며, 올해부터 관내 전체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남국씨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이 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학교를 지역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회원들의 정성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영랑초교 등굣길 아이들 보호 이원기씨

8년째 교통안내 “정지선 좀 지켜주세요”

“8년전 비오는 날이었어요. 학교 앞이고,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들이 썩썩 달리더라고요. 아이들이 흙탕물을 뒤집어쓰면서 등교하는 걸 보고, 자식 가진 부모로서 이래선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속초시 영랑동에서 전기조명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원기씨(42, 사진)는 지난 2000년 아들 동영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길을 나섰다가, 학교 앞 횡단보도마저 무시하는 운전자들의 모습에 놀라 등굣길 교통안내에 나서기 시작했다.

올해로 8년째 영랑초교 후문에서 아

이들이 등교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오전 8~9시까지 한시간 가량 교통안내를 하고 있다. 짙은 남청색 모자를 눌러쓰고, 흰 장갑을 낀 두 손은 이리저리 수신호를 보내느라 분주하다. 때론 긴 호각소리로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도 한다.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은 어른들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횡단보도에서는 당연히 차가 설 줄 알고 무작정 건너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안전 운전을 해야 합니다. 운전자들이 조금만 마음을 느긋이 갖고, 학교 앞에서는 저속 운행하고, 정지선은 꼭 지켜줬

으면 합니다.” 이씨는 특히 정지선을 어기는 사람들이 대부분 학부모들이어서 안타깝다고 했다. 자기 자녀를 내리는 과정에서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일부 학부모들은 아예 횡단보도에 정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런 차량 때문에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순간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씨는 또 녹색어머니회 회원들과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이 함께 교통안내를 하고 있는데, 인원배치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80%의 어린이가 후문으로, 20%의 어린이가 정문으로 등교를 하는데, 대부분의 인원이 정문 쪽에 배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아무런 보수도 없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은 보람 때문이다. 가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는 마냥 흐뭇하다. 최근에는 8년 전 교통 안내를 받았던 동네의 한 어린이가 성인이 돼 이씨를 찾아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이씨는 아이들이 신발을 꺾어 신은 채 횡단보도를 건너면 조용히 다가와 ‘신발은 바로 신어야 안전하단다’라는 말과 함께 다정하게 신발을 신겨주기도 한다. **이우철 기자**

작품 '4월'로 제14회 지용신인문학상 당선 정영애씨

“모두의 가슴에 스며드는 시 쓰고파”

“얕은 잠에서 일어나 막 깨어난 기분입니다. 나를 세상에 눈뜨게 해주신 부모님과 글 쓴다는 이유로 밥도 잘 챙겨주지 못했던 가족들, 특히 장애가 있어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는 딸 소정씨와 아직도 ‘엄마, 안아주세요’ 하는 성격 좋은 아들 일출이, 든든한 후원자 남편,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속초평생교육정보관에서 문학수업을 받고 있는 정영애씨(52·속초시 금호동)가 작품 '4월'로 제14회 지용신인문학상에 당선됐다.

지용신인문학상은 '항수'의 시인 정지용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한국문단을 이끌어 갈 역량 있는 신인작가의 발굴을 위해 동양일보사가 제정하고 정 시인의 고향인 충북 옥천군이 후원하는 촉망받

는 신인 등용문이다.

당선자는 500만원의 상금을 받고 기성 시인으로 인정받게 된다. 시상식은 오는 16일 오전 11시 지용제가 열리는 옥천군 옥천구청 회의실에서 열린다.

올해 지용신인문학상에는 전국에서 총 287명이 1,913편의 작품을 응모했다. 심사를 맡은 연세대 석좌교수인 문학평론가 유종호씨와 시인 신경림씨는 심사평에서 “'4월'은 지나간 사랑을 회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그 사랑이 화로 속의 불씨처럼 다른 사랑으로 되살아날 수 있으리라는 암시와 더불어 수채화처럼 아름답고 달콤하고 슬픈 이미지로 승화되고 있다. 빼어난 감각이 시를 시종 활기치게 만들고 있는 점도 이 시의 미덕이다”고 평했다.



지난 2003년 의정부에서 속초로 이사 온 정씨는 그 해부터 지금까지 속초평생교육정보관 문예창작반에서 이상국·권정남 시인으로부터 문학수업을 받으며 문우들과 함께 치열하게 시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다.

“중학교 때 처음 소원을 알게 되면서부터 만난 시를, 늘 감기처럼 앓았다”는 그는 2001년 3회 의정부 신인문학상 장원을 시작으로 2003년 강원여성백일장 대상, 2006년 계룡시 전국여성백일장 대상, 2006년 신시임당 문예대전 대상 등을 수상하며 이미 여러 대회에서 실력을 인정받아왔다.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딸로 인해 마음 아픈 일도 많았지만, 밝게 자라주고 있어 감사하다는 정씨는 대구사이버대학에서 특수교육 공부를 4년째 해오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마다 재가 장애인들을 위한 도시락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장애통합교육 수기 학부 모 부문 으뜸상도 수상했다.

정씨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나는 다시 시를 쓰고 철없이 가슴 아플 것”이라며 “침묵에서 퍼지는 종소리처럼 모두의 가슴에 스며드는 시를 쓰고 싶다”고 말했다.

가족으로는 남편 김창호씨(51·사업)와 아들 일출군(속초고 1년), 딸 소정양(속초여중 2년)이 있다. 정재환 기자

양양 청성풍물패 이해원 단장

15년째 청소년·주부 대상 농악 전수

“덩덕덕 쿵덕, 덩기덕 덩더러덕. 우리 소리보다 더 신명나고 즐거운 리듬이 어디 있나요.”

양양에서 15년째 청성풍물패를 이끌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잊혀져가는 전통농악을 전승하고 있는 한 젊은이의 ‘농악 사랑’이 화제다. 그 주인공은 청성풍물패 단장을 맡고 있는 이해원씨(44, 사진).

양양군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이 단장은 지난 94년 청성풍물패를 창단한 뒤 지속적인 연습과 공연으로 기량을 전국 수준급에 올려놓은 가운데 연 10여 회 이상 굵직한 공연에 참여하며 농악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지난 98년에는 지역주부들의 취미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해 양양문화원에 풍물패 강좌를 마련하고, 수강생을 중심으로 한가람 풍물패를 창단해 주부들이 생활 속에서 농악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 단장이 농악과 본격적인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93년. 강원대 축산학과(84학번)를 졸업하고 88년부터 이천시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면서 짬짬이 농악을 익혔던 그는 93년 양양군농업기술센터로 전입은 뒤 설악권 최고의 풍물패인 ‘갯마당’과 인연을 맺게 된 것. 갯마당 회원



과 이사로 활동하며 사물놀이를 익힌 그는 이듬해인 94년 청성풍물패를 창단했다. 청성은 ‘맑은 소리’란 의미다.

그는 특히 지역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 농악교육에 집중하며 특활시간을 활용해 양양고와 양양여고생들에게 농악을 전수해 왔다. 그를 거쳐 간 제자들만도 졸업아 400여명이 넘는다.

청성풍물패는 도 사물놀이 경연대회와

농촌진흥청 대회에서 다수의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기량도 수준급에 올라 있다. 30여명의 회원들은 매년 해맞이와 달맞이축제, 부처님 오신 날, 현산문화제, 송이·연어축제 등 각종 지역축제와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특히 소년소녀가장을 비롯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선공연에도 적극 나서 주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다.

“연어의 고향이 남대천이듯 농악은 저에게 고향과 같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 청소년들에게 구수한 우리가락을 전하고, 주민들의 삶이 활기찰 수 있도록 신명나고 정겨운 가락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양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환경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 단장은 요즘 바쁜 영농철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락의 진가를 알리는데 여념이 없다.

김주현 기자

설악신문 창간18주년을 축하합니다

지난 90년 5월 『지역 문화의 창달』이란 사명감으로 뜻을 올린 설악신문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밤낮없이 달려 창간 18주년을 맞이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역민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문화활동에 기여하고, 생활환경의 향상에 이바지하여 작지만 영향력 있는 지역신문으로 나아가 주기를 바랍니다.

설악신문 애독자

산과 바다, 호수와 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설악의 유일한 정론지

www.yulimgagu.co.kr

26년 전통의 축적된 기술로 탄생한

YULIM 유림퍼니처

사무용 OA가구, 싱크대, 붙박이장, 소파, 신발장, 벽장, 문갑 등은 26년의 축적된 기술과 10여명의 고급기술자를 보유한 유림퍼니처 공장에서 ... 직접 제작 판매



YULIM 유림사무용, 유림소파, 유림싱크

- 조달청 사무용가구 제조업체로 등록, 중소기업중앙회 인증 사무용가구 직접생산확인업체-
유림퍼니처는 축적된 기술력과 검증된 제조업체로서 설악의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



노송가구 종이재질의 친환경소재 혼수장농 및 혼수 신제품 전시, 신상품 할인판매

상일리베침대 특별할인

- 쇼 파
- 싱 크 대
- 사무용 가구

대진침대

- 유림 쇼 파 - 공장특별할인

※ 싱크대, 붙박이장, 서재, 전시판매 ※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90-1 ▶유림퍼니처 공장 ☎631-3189

▶유림쇼파 공장 ☎632-3640 ▶대진침대 ☎631-3640 ▶노송가구 ☎635-5924

“잠자는 동전 지폐로 교환하세요”

속초시 5월 한달간 집중 추진...생산비용 절감 위해

속초시가 저금통이나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잠자고 있는 동전을 지폐로 교환하는 범시민적 운동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함께 급증하고 있는 동전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10원짜리 동전 1개를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40원, 50원짜리 동전은 70원이 든다.

시는 5월 한 달간을 집중 교환운동 시기로 정하고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시청 민원실과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는 동전교환창구가 마련됐으며, 지폐로 교환이 되지 않는 액수의 자투리 동전 등은 모금함을 설치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등에 시 이름으로 기부할 계획이다.

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중 은행에서도 대기 번호표 없이 동전을 교환할 수 있도록 사전 양해를 구한 상태다.



지난 2일 속초시 관계자들과 관내 은행 관계자들이 동전 교환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회의를 가졌다.

동전 교환운동은 지난달 29일 강원도 시군 긴급현안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시는 지난 1일과 2일 시청 관련 부서와 시중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동전교환운동 추진 배경과 업무협약의 등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07년말 동전유통현황을 살펴보면 국민 1인당

349개의 동전을 보유(국민 4천8백만명 기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 한 해에 발행된 10원짜리 이상 동전의 총액은 1,372억원에 달한다.

또한 매년 신규 동전발행비용으로 400억원이 소요된다. 현재 누적발행 동전 총 168억개의 1.3%인 2억2천만개만 회수돼도 200여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우철 기자



재경거진중고 총동문회가 지난 4일 서울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렸다.

재경 거진중고 총동문회 체육대회 동문가족 1,500명 참가 화합 다져

2008년도 재경 거진중고 총동문 체육대회가 지난 4일 서울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대운동장에서 동문과 가족 등 1,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체육대회에는 재경 거진중고 동문들과 재경 영북지역 7개 동문회장, 모교인 거진중학교 임태식 교장, 거진종합고등학교 손영주 교장, 유태선 고성부군수, 동문인 주기동 서울고법부장판사(거진중 9회), 신상복 도민회사무국장 등 내·외빈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기수별로 나눠 치러진 이번 체육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축구 족구 줄다리기 여성동문 승부차기 등 체육행사에 이어 고향에서 주문한 해산물 등을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용수 기자 ellan92@goseong.org

숲·자연·문화관광 해설가 속초로

2008 세계해설가대회 11~16일까지...500여명 참가

국·내외 숲·자연·문화관광 해설가 500여명이 참가하는 2008 세계 해설가대회가 지난 11일 속초에서 개막했다.

NAI(National Association For Interpretation) & NAI KOREA가 공동 주최하는 2008 속초 국제회의는 전 세계 전문 해설가 500여명이 참석하는 최대 규모 국제워크숍으로 숲과 자연, 문화유산 해설가의 전문성 향상과 새로운

형태의 해설기법 교류 및 도입을 위해 마련됐다.

11일까지 6일간 한화리조트에서 진행되는 이 대회는 세계 각 나라 해설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자연과 숲, 문화 등을 알고 느끼면서 해설전문기법과 활용사례를 소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양한 워크숍이 진행되는 동안 대회 참석자들은 성국사와 청초호, 낙산

사 등 강원도 명승지를 답사하고, 사물놀이 공연을 관람하는 등 우리나라의 자연과 문화를 함께 느끼는 시간을 갖게 된다.

NAI 한국 대표이며 이번 국제회의를 총괄 준비 중인 순천대 조계중 교수는 “세계해설가협회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제회의 및 워크숍 개최와 지역별 분야별 학술활동 지원, 학술지 발행,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양성 및 기술 지원을 하는 국제 단체”라며 “국제적 훈련과 연구, 홍보, 웹사이트 운영, 장학금제도, 등 다양한 업무도 서비스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장재환 기자

늘사랑 장학문화재단 제28회 장학금 수여

재단법인 늘사랑 장학 문화재단(이사장 김상기)은 지난 3일 오후 2시 속초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회의실에서 제28회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늘사랑 장학 문화재단은 초·중·고생 32명과 대학생 15명, 지정기탁금 수혜자 2명 등 총 49명에게 1,485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1980년 첫 장학금을 지급한 이래 지금까지 모두 583명에게 2억3,579만여원을 지급했다.

장재환 기자

횡성한우전문점

한우의 맛은 자연을 닮습니다

횡성한우 참숯 불구이

맑고 청정한 자연환경속에서 키워진 **횡성한우** 특유의 부드러운 육질의 맛을 최고의 서비스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드셔보세요.

♥메뉴♥

- 한우등심 • 한우모듬 • 한우육회
- 점심특선 : 한우사골 갈비탕

단체예약 · 연회석완비 · 넓은주차공간

속초시 청학동 김안경원 골목 內

T. 033. 638-0599/010-2273-0599

속초세무서-원일전리 1사1촌 자매 결연



속초세무서 직원들과 양양 현북면 원일전리 주민들이 자매결연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했다.

속초세무서(서장 이용우)와 양양 현북면 원일전리(이장 진금수)가 지난 8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활동에 나섰다.

속초세무서는 이날 이용우 서장과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일전리 마을회관에서 농촌사랑 자매결연 체결 행사를 갖고, 짚풀공예전시관과 산채단지에서 1일 농촌체험 행사를 가졌다.

이용우 속초세무서장은 “국민이 공감

하는 세정을 펼치는 속초세무서와 천혜의 휴양마을인 원일전리가 이제 한 가족이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원일전리가 발전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축하했다.

진금수 원일전리 이장은 “금플애마을로 마을브랜드를 높이며 새농어촌건설 운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속초세무서와 자매결연을 체결해 든든한 힘이 돼 감사한다”고 화답했다.

김주현 기자 joo69623@hanmail.net

‘부부를 위한 산책길’ 개최 속초YWCA 24일 오전 7시

속초YWCA 가정폭력상담소(소장 정일용)가 오는 5월 24일 부부의 날을 맞아 부부가 함께 산책길에 나서며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부부를 위한 산책길’이란 행사를 개최한다.

‘평등 부부, 건강한 부부’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행사는 24일 오전 7시 이하 예식장 옆 공터에 모인 부부들이 부부선언문을 낭독하고, 영랑호 산책로를 걸으며 다양한 부부이벤트를 진행한다.

가정폭력상담소는 이번 행사에 참가한 부부들에게 간단한 간식과 음료를 제공하고, 사전 접수를 한 부부 선착순 50쌍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부부의 날(5월 21일)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궈 가자는 취지로 기획돼 지난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사전접수 : 635-3520, 638-1366> 이우철 기자

‘향토문화재 돌보미’ 가져

속초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법무부 속초보호관찰소(소장 서보동)는 지난 7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과 직원들이 지역 향토문화재를 찾아 주변 환경정리와 잡초를 제거하는 ‘향토문화재 돌보미’ 행사를 가졌다.

이번 봉사활동은 승례문 화재로 인해 문화재 보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관리가 소홀한 향토문화재를 보호하고, 보호관찰대상자들을 향토문화재 보호에 참여시켜 애항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우철 기자

바로 잡습니다

지난 5월 5일자(본보 855호)에 보도됐던 이 모임 ‘설악독서지도연구회’의 기사와 관련, 박현주씨는 회장이 아닌 부회장이며, 회장은 김선미씨이기 바로 잡습니다.

어버이날 행사 이모저모 ...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효, 사랑나누기 한마당’



속초시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7일 복지관 3층 대강당과 옥상에서 500여 명의 노인이 참석한 가운데 ‘효, 사랑나누기 한마당’ 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참석한 우송 신흥사복지원 원장(신흥사 부주지)과 채용생시장, 홍우길 시의장 등 기관단체장과 사회복지사들이 노인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면서 막이 올랐다.

이어 60세 이상 노인들로 구성된 속초실버예술단의 난타 공연, 댄스스포츠, 관현악 연주, 고전무용 공연이 열렸다. 이날 가장 관심을 모은 프로그램은 ‘나도 댄스 짱, 경연대회’와 ‘실버 가수왕’ 코너였다.

이날 속초시노인종합복지관은 행사장을 찾은 노인들에게 소정의 상품과 경품을 지급했다. 이우철 기자

조양동청년회 카네이션 선물



조양동청년회(회장 김상래) 회원들은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조양동 소재 19개 노인회관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음료를 전달했다.

조양동청년회는 앞으로도 노인회관에 각종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지 달려가 어르신들을 돌봐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우철 기자

낙산사 어르신 큰 잔치



대한불교 조계종 오봉산 낙산사(주지 정념스님)가 올해로 세 번째 양양 관내 어르신 큰 잔치를 열고 노인들을 위로했다.

낙산사는 지난 2일 오전 10시 양양 실내체육관에서 정념 주지스님과 이진호 양양군수, 송훈석 국회의원 당선인,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천여명의 지역노인들을 초청, 경로잔치를 갖고 노인들에게 점심을 대접했다.

이날 남보원 등 불자 연예인들이 대거 참여해 노인들의 흥을 돋우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낙산사는 이날 초청된 노인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하며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를 축원했다. 김주현 기자

양양예총 ‘어버이 효 큰 잔치’



양양예총은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양양지역 최초로 열린 어린이날 행사를 주관한데 이어 7일에는 어버이날 기념 ‘어버이 효 큰 잔치’를 열어 주민들에

게 뜻 깊은 가정의 달을 선사했다.

양양예총 연예인협회는 어버이날을 지난 7일 오후 1시30분 문화복지회관 대공연장에서 어르신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은혜에 감사하는 어버이날 기념 효 큰 잔치 무대를 가졌다.

석경환씨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스포츠댄스와 어린이 뽀리댄스, 에어로빅, 트로트 메들리, 달래음악단 공연 등 흥겨운 무대로 열렸다.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노인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정겨운 시간도 마련돼 어버이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파인리즈CC 한가족 그린축제



고성 파인리즈CC(회장 김재봉)가 어버이날을 맞아 지난 7일 토성면 주민과 노인 등 1,500여명을 초청, ‘참사랑 한가족 그린축제’를 열었다.

2회째인 이날 행사는 파인리즈CC 소속 티칭프로들로부터 골프수업을 받고 있는 인흥초교 학생들의 골프체험에 이어 점심식사를 하고, 노인들이 카트에 탑승해 골프장을 곳곳을 둘러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인흥초교 아이들의 풍물놀이와 파인리즈 직원 및 마을 주민들이 어우러진 장기자랑 행사도 열렸다. 또 가수 오승근, 강민주 초청공연과 평소 접하기 어려운 아프리카 공연팀의 현란한 춤사위도 펼쳐져, 모처럼 노인들이 환한 미소를 띠며 즐거워했다. 이용수 기자 ellan92@goseong.org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 회원 가입 안내

[당신의 작은 사랑이 희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나누어 주세요]

□ 회비안내

◆개인회원 - 1년 회비 20,000원, 단체회원 100,000원

◆평생회원 - 개인 200,000원, 단체 1,000,000원

◆계좌번호안내 - 우체국 202309-01-001404 예금주 : 속초사회복지협의회

□ 가입문의

◆전화 : 033)633-1363, ◆홈페이지 : http://happysokcho.com

사회복지법인 속 초 시 사 회 복 지 협 의 회

청초호의 새<41> 청다리도요



몸 윗면은 옅은 회갈색에 하얀 옆구리와 초록빛이 도는 다리를 가진 청다리도요는 몸 길이가 35cm정도로 날씬한 몸매에, 약간 위로 휘 부리를 가지고 있다.

간다리로 비교적 깊은 물도 걸을 수 있고, 걸을 때 머리와 몸을 위아래로 까닥거릴 때도 있다.

내륙습지, 바닷가, 갯벌, 논, 하천 등에서 작은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얕은 물에서 물 속에 부리를 약간 벌리고 빠르게 움직이며 작은 물고기를 잡는 독특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고 한다.

유라시아대륙 북부에서 번식하며 겨울을 보내기 위해 수 천 km 떨어진 아프리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로 날아 가는 도중에 봄, 가을 우리나라에서 잠시 쉬어가는 나그네 새이다.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쉬어가듯이 청초호는 새들이 다시 날아갈 힘을 비축하며 쉬는 중요한 경유지다.

〈글·사진 :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 '새처럼'〉

어린이 경제교실 10일 개강

속초경실련 총 4강 진행

속초경실련 어린이 경제교실이 지난 10일 개강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어린이 경제교실은 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회의실에서 오는 6월 28일까지 총 4강이 진행된다.

최영미 속초YWCA 경제교육강사, 조성진 경제학 박사, 안황모 농협중앙회 속초부영지점 총무팀장, 고인선 속초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이 강사로 나선다.

장재환 기자

설악신문사·속초연탄은행 공동캠페인 / 어려운 이웃에 연탄을 보냅니다

14일 2008년 상반기 쌀통 개방식

기존 쌀통 대용량으로 교체...쌀 저장고 8곳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을 전달하는 '쌀 은행' 사업이 오는 14일부터 재개되는 가운데 요즘 속초연탄은행(대표 김상복)은 원활한 쌀 공급을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속초연탄은행은 금호동과 고통, 노학동, 청호동 등 4개 지점에 비치됐던 쌀통을 스테인리스 재질의 대용량 새 쌀통으로 교체하고, 장사동, 동명동, 대포동(2개소) 등에는 새로 쌀통을 들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속초에는 쌀 저장고가 8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연탄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4개 지점의 플라스틱 재질 쌀통은 4~5kg 단위로 포장된 쌀이 20여개만 들어갈 정도로 딱 찰 정도로 좁았으며,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장기간 사용이 어려웠다. 교체되는 쌀통에는 4~5kg 포장 쌀 40포대의 저장이 가능하다.

또한 쌀 보급처가 없어 쌀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사동과 동명동, 대포동 등에는 4~5kg 포장 쌀 20포대를 저장할 수 있는 쌀통이 비치된다.

이번 쌀통 교체 및 신설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아 진행된다.

속초연탄은행의 쌀 은행 사업은 각 통장을 관리자로 임명해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쌀을 나눠 주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독거노인들에게는 매달 10kg의 쌀이 배달된다.

한편 오는 14일에는 금호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각 기관·단체장과 자원봉사자, 쌀 수급 대상자들이 모인 가운데 2008년 상반기 쌀통 개방식이 진행된다.

이날 연탄은행은 8개 지점에 마련된 쌀통에 모두 400포대의 쌀을 채울 예정이다.

2008년 5월 2일 ~ 2008년 5월 8일



속초연탄은행 관계자들이 새 쌀통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후원 현황

◆ 연탄 후원 : △김기복 100장 △지승연 250장 △김시민 75장, 총 425장.

※ 후원계좌안내: 연탄 1구좌 40,000원(1장 400원, 10장 4,000원, 100장 40,000원), 쌀 1구좌 10kg 24,000원 농협(251-01-348974 속초연탄은행) <문의 및 자원봉사 신청: 033) 632-0122>

이우철 기자

간성초교, '불조심 학습평가' 최우수상 수상

강원도 소방본부 주최서 평균 91.8점 받아

오는 21일 전국대회 도대표로 출전

고성 간성초등학교(교장 전창기)가 도 소방본부가 주최한 '불조심 어린이 마당 학습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도 소방본부는 지난달 29일 도내 33개 초교 5학년생 1023명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대처요령 등에 관련해 학습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균 91.8점으로 간성초교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우수상은 강릉 주문초교와 철원초교, 장려상은 원주 교동초교, 동해 천곡초교, 강릉초교가 각각 수상했다.

간성초교는 이번 대회를 위해 한달 전부터 이론교육과 체험교육을 병행하며 아이들에게 사고예방과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왔다.

간성초교는 이번 대회를 위해 한달 전부터 이론교육과 체험교육을 병행하며 아이들에게 사고예방과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왔다.

이번 대회를 위해 교육을 담당했던 권재형 교사는 "불조심 학습평가는 단순 상식에서 벗어나 심층적인 이론까지 들어가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어, 아이들 교육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며 "하지만 아이들이 이론과 체험 교육을 잘 소화해 줘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간성초교는 오는 21일 '제8회 전국 불조심 어린이마당 대회'에 도 대표로 참가한다.

한편, 간성초교는 지난해 대회에서 3위를 차지해 도 소방본부로부터 20만원의 포상금과 상장을 수여받았다.

이용수 기자

초등영어 기초반 개강					【일본어 기초반 개강】			【중국어 기초반 개강】									
5월 19일 PM 3:00					2008년 5월 13일			2008년 5월 13일									
					AM 11:00 / PM 6:30			AM 10:00 / PM 3:00									
☎현재 접수중 입니다☎					♥ 시간의 날개를 타고 슬픔은 날아가 버린다. ♥												
◇영어 회화◇					◇일어 회화◇			◇중국어 회화◇									
Bernie Mark Rebecca Niki					各務 希 内村香織 金銀子			禹東浩									
오전반	8:00	성인 영어회화 기초 I				오전반	10:00	일어 기초 회화반 (Shin Bunka I)			오전반	10:00	중국어 기초 회화 I (5월 13일 개강)				
	9:30	성인 영어회화 II (월, 수, 금)					11:00	일어회화 중급 (다이내믹)	일본어 기초 개강 예정반 (5월 13일)			11:00	중국어 회화 기초반 301				
	11:00	성인 영어회화 고급 Free talking (월, 수, 금)					1:00	일본어 회화 기초반 (Shin Bunka I)				12:30	중국어 회화 중급				
오후반	3:00	초등영어 II Let's Go 2	초등영어 I Let's Go 1	초등영어 기초 개강 예정반(5월 19일)		오후반	2:30	일어회화 중급 (회화 일본어 I)			오후반	2:00	오픈중국어 I				
	4:00	초등영어 Let's Go 3	초등영어 Let's Go 4	초등영어 English time 4	초등영어 Let's Go 6		Elementary School smart reading 2	4:55	초·중등 일어 회화 고급 (2급대비, JPT대비반)			4:00	오픈중국어 회화기초 I	초등중국어 중급 (신공략)			
	4:55	초등영어 English time 5		초등영어 Let's Go 6			Middle school passages 1	middle school side by side 3	5:50	일어 회화 기초 (Shin Bunka I)		초등 일어 회화반 (Shin Bunka II)		4:55	초등중국어 오픈중국어 I	중국어 기초 II	
	5:50	Elementary & middle side by side 3		초등영어 Let's Go 1			Elementary & middle school Side by Side 2		초등영어 Let's Go 5	6:45		일본어 기초 개강 예정반 (5월 13일)	일어 회화 기초 (Shin Bunka I)		5:50	설한어 (중급 I)	
	6:45	초등영어 기초 Let's Go 4		초등영어 English time 2			초등영어 기초 Let's Go 3		초등영어 Side by Side 1	7:40		일어 기초반 (Shin Bunka I)	일어 회화 중급 (2급 대비반)		6:45	중국어 중급 (신공략)	
	7:40	성인 영어 기초 II Headway 1		성인 영어 기초 I Essential Grammar In use			성인영어 회화 중급 Passages 1			8:35		일어 회화 기초반 (Shin Bunka II)	일어 고급반 (1급대비, JPT대비반)		7:40	설한어 (중급 I)	오픈중국어 회화 기초 II
8:35	성인영어 회화 Free talking				영어회화기초 I Headway starter	High school 영어회화 Headway 1						8:35	오픈중국어 회화 기초 I				
영어 수강료 : 월 12만원					♥일어수강료 : 월 10만원 / ♥중국어 수강료 : 월 12만원												
다리외국어전문학원 ☎ 033. 633-0882																	

설악칼럼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김원범
속초YMCA사무총장

5월은 청소년의 달이며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언론이나 마스크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영어 몰입 교육, 학교자율화, 0교시수업 부활, 심야학원 규제 해제, 수능 영어폐지 등 몇 개월 사이에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건(?)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위한 정책들뿐이고 탈학교 청소년이나 실업계고등학교를 위한 정책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내 자식을 위해 부모님들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소리치지 않을 까요? 한 나라의 장래를 보려면 그 나라의 청소년을 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한나라의 청소년이 씩씩하며 희망에 차 있을 때 그 나라의 미래도 밝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이 가정 외에는 평안히 쉬며 여가 및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은 어제, 오늘의 현상은 아닙니다. 학교가 파하고 오후 시간이 되면 갈 곳이 없어 시내 중심가와 유흥가 주변 거리를 방황하는 청소년

들이 꽤나 많이 눈에 보입니다.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드나들 수 있고, 여가 시간을 다양하고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공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우리 지역의 주변실태를 파악하여 건강하고 유익한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환경 조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 비행의 양적 증대는 물론, 날로 흉포화, 집단화, 확산화, 저연령화되는 추세가 확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청소년 문제는 이제 단순히 개별적이거나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문제해결에 대한 시급성이 더욱 요망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제는 시각에 따라 그 원인 분석에 접근하는 방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범죄나 비행의 발생원인을 가정, 학교, 사회의 측면에서 보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발생의 원인을 잘못된 여가활동에서 비롯된다고들 주장합니다.

우선 여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 가정, 학교, 사회에서는 선도나 교육을 통해서 건전한 여가활동의 필요성 및 중요성과 함께 여가활동에 관한 클럽형성 참여가 권장되어야 함은 물론 이에 대한 육성을 촉구해야 합니

다. 청소년들에게는 어느 누구보다도 일생에 있어 여가가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청소년들은 주입식에 습성화되고 입시 지향적 교육에 얽매어 있는 실정으로 진정한 의미의 여가선용을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여가선용을 위한 장소(공간)가 빈약하여서 전무 상태라 함이 타당한 표현 일겁니다. 학교에서는 입시위주교육을 덜기 위해 청소년의 욕구와 흥미에 부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청소년단체와 연계하여 상시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찌들린 정서환경을 청량한 놀이공간으로 만들어 주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 지역사회에서 부족한 여가시설에 대한 설치 및 확충과 보충,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책도 적극 고려되어야 하며 기존 시설과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형성하고 장차 이 나라 내일의 주인공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본위의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며 청소년의 여가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의 활성화 추진방안이 마련되고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가선용은 청소년 문화의 활성화는

물론, 청소년 범죄나 비행으로부터의 돌파구가 되며 선도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이 사회적인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함은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드나들 수 있는 여가공간이나 청소년 전용공간·시설들이 부족함으로 유해환경 시설물들을 드나드는 현상이 안타깝습니다. 다행히도 올해부터 속초시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게 된 만큼, 조금이나마 청소년을 유해환경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보면서, 더불어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드나들 수 있는 여가공간 마련을 위해 지역사회의 어른들께 깊은 관심과 애정을 요청합니다.

청소년들이 살아 가야 할 세계는 공부만을 잘하는 사람만이 필요한 세계가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요구되는 그러한 사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어른들이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은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선거 등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 중에 과연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내용들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항상 아쉽기도 하고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누구 한사람의 힘만으로는 되질 못합니다. 모두가 관심을 갖고 성원하고, 동참해야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교육·여가 공간이 조금씩 조금씩 확보되어 갈 수 있을 겁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Q&A

Q 장기요양인정신청 후 공단 직원이 방문 조사 시 신청인측에서 준비할 사항을 알려주세요?
A 네,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직원은 방문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 체계적으로 신청인을 방문합니다. 공단직원은 방문조사 계획 수립시 신청인측과 미리 연락하여 방문할 장소와 일시를 정합니다. 신청인측에서는 약속한 장소나 일시의 변동이 있으면 즉시 공단에

연락하고, 의사능력이 없는 신청인은 방문조사 시 반드시 가족 등과 동석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Q 장기요양 1·2·3등급은 어떤 수준에 있는 분들인가요?
A 장기요양 1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으로서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입니다. 예를들어,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나 식사, 옷입기, 씻기 등의 신체활동에 다

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중중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자주 보이는 상태 등입니다. 장기요양 2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에서 95점 미만으로서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입니다. 예를들어,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 행동을 할 때 다른사람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와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가끔 보이는

상태 등입니다. 장기요양 3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5점 이상에서 75점 미만으로서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입니다. 예를들어,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에 따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을 받아야 가능한 상태와 가사일이나 집밖의 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등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동부지사
문의 1577-1000

설악고등학교 총동창회 소식

www.sokchosango.com

속초시 교동 654-133(3층) T. 635-9546, F.637-9546

■ 설악고등학교 5월 월례회개최

- 일시 : 2008년 5월 9일 금 오후7시
- 장소 : 설악고 총동창회회의실

설악고등학교 총동창회 가족 한마음체육대회

- 일시 : 2008년 5월 25일(일) 오전 9시~
- 장소 : 설악고등학교 운동장

(참여와 후원해주시실 동창님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635-9546)

※ 설악고 총동창회 가족 한마음체육대회에서는 각기수별 체육부장을 통하여 모든진행사항 및 운영을할 예정이오니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체육국장 : 장일기 010-3382-8588)

▶ 제63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강원도

예선 대회

- ★ 설악고등학교 우승!!
- ★ 강원도 대표확정!!

▶ 설악고등학교 총동창회인문위원회 ⇒ 모교방문

- 2009학년도 학칙변경 및 학과개편 에 따른 의견 토의 안

▶ 제43회 설악문화제 위원회 사업계획서 제출

- 설악고등학교 총동창회 여성위원회 바자회예산 산정 제출 (2008.5.8)

※참고사항:홈페이지 : http://seorakgo.com) 으로 변경바랍니다

사는 이야기

합성이 사라진 놀이터



권정남
시인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라는 노래를 들으면 아이들 합성이 어디선가 들려오는 듯 하다. 창 밖을 내다본다. 놀이터엔 정적이 일고 초여름 햇살과 바람만이 놀이기구를 오르내리며 뒹굴고 있다. 숲에서 메아리가 사라지듯 요즘 놀이터에 아이들 합성이 사라지고 있다. 놀이터 주인공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몇 해 전만해도 조용한 오후 책이라도 읽으려고 하면 놀이터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합성과 웃음소리 때문에 책에 집중 할 수가 없어 창문을 닫곤 했었다. 창문을 타고 넘겨쳐 올라오던 새소리 같던 아이들 소리가 이젠 끊어졌다. 물오르듯 싱그러운 생명의 소리는 왜 점점 놀이터에서 사라지고 있는 걸까.

세상이 무섭다 올 봄, 해진, 예술양을 유괴하여 성폭행 후 살인한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자어린이를 폭행한 장면이 감시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대낮 어린이 유괴사건도 뉴스에 자주 보도 되곤 한다. 그런 미성숙한 어른들 때문에 학교 귀가 길이나 동네 골목길을 지날 때 아이들은 지레 발을 디디듯이 다녀야 한다.

아이들 둔 부모들은 노심초사하는 마음이다. 동네 골목길, 현관 앞이 무서운데 어찌 아이를 놀이터에 마음 놓고 내 보낼 수가 있는가? 올 시월부터 아동성 폭행범죄자 발에 전자발찌를 채운다고 하니 그렇게 하면 아이들한테 무서운 세상이 사라질까.

요즘 아이들은 바깥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 혼자 노는데 익숙해져 있다.

그러다가 보니 친구 보다 더 재미있게 잘 놀아주는 친구가 온라인 상 게임이다. 아이들은 가상의 세계에 블랙홀처럼 사정없이 빠져 들어가 더 이상 외롭지 않다. 번거롭게 친구를 불러내어 놀이터에서 놀 필요를 못 느낀다.

노는 법을 모르는 아이들이 택한 놀이가 얼마 전 화제가 되었던 대구 초등학교 어린이 집단성폭행 사건이다. 충격이다. 이쯤 되고 보면 아이들 놀이문화가 갈 때까지 간 것이다. 그런 놀이문화가 어디 대구 뿐 이겠는가, 무방비로 노출된 성적인 영상 매체들이

난무한 가운데 건전한 놀이문화를 가르쳐 주지 못한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요즘 아이들이 놀 시간이 없다. 우리 사회가 입시위주 경쟁 사회로 치닫다가 보니 사교육을 선호하게 된다.

아이들은 방과 후 여러 군데 학원을 전전하다가 해가 진 뒤에야 지친 몸으로 집으로 오게 된다. 놀고 싶어도 놀 시간이 없는 것이다. 신설 아파트 마다 놀이터 기구는 아이들의 정서와 체력에 맞게 세련된 기구로 맞춤형 놀이시설을 만들어 놓았지만 놀이터 주인공은 돌아 올 줄 모른다. 그림의 떡이 되어 버린 셈이다.

예전에 우리가 자랄 때 놀이터라는 특정한 장소가 없었다. 동네 골목, 야산, 장독대, 대문 뒤, 개울가 아무데고 소꿉놀이, 고무줄, 숨바꼭질, 땅따먹기 등 노는 그 자리가 최고의 놀이터가 되었다. 놀이기구 역시 깨진 그릇, 나무 막대기, 신발, 자갈돌등, 그저 닦는 것마다 멋진 놀이 기구가 되었다. 그 시절엔 혼자서 놀 줄을 몰랐다. 놀이를 통해 ‘나’ 라는 단어 보다 ‘우리’ ‘너’ 라는 단어를 먼저 배웠으며 소규모 사회생활을 미리 답습했던 것이다. 거기서 양보와 배려의 문화를 일찍 깨달았으며 놀이를 통해서 얻은 상상력과 창의력은 훗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직장이나 소속된 사회에서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대도시엔 신설 되는 몇 학교에 운동장이 없다고 한다. 방과 후 운동장에서 축구나 농구를 하는 아이들은 없고, 땅값은 비싸니 아예 운동장 없는 학교가 더 실속 있는지도 모른다. 작가 이에 슈라이머는 “같이 놀래?” 는 자기가 쓴 모든 작품의 주제라고 했다. 모든 아이들이 서로 다름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어 같이 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같이 놀래?” 이 한 마디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화합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며 함께 잘 놀 줄 알아야 된다고 했다.

물질 만능사회, 아이들 놀이 문화조차 물질로 대체되고 있는 요즘이다. 메아리와 새소리가 숲을 키우듯이, 푸른 오월, 사라진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합성이 언제쯤 놀이터에 다시 돌아 올 수 있을까

국회연수원은 고성군으로

국회연수원 부지가 고성군 도원리로 선정된 가운데 최근 한나라당이 17대 국회 임기 중에 국회연수원 입지를 결정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국회 사무처에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충청권 국회의원들과 지역주민들이 국회연수원의 충북 제천 유치 의사를 표출하고 있는 것과 맞물리면서, 고성군 유치가 번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다행히 국회사무처가 연수원 건립부지 변경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고성군에 알려와 다소 안심은 되지만, 그렇다고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충청권에서 접근성 등을 내세우며 국회를 압박할 경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무슨 의도에서 국회연수원 입지 결정을 18대로 넘기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고성군 도원리 결정을 번복해서는 결코 안 된다. 국회연수원 입지는 후보지 선정과 현지 실사, 심의 등 이미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 이 때문에 무리하게 기존 결정을 뒤집을 경우 절차를 중시해야 할 국회 스스로 합법적 절차와 과정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그에 따른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국회연수원 입지는 고성군과 인제, 횡성군이 후보지로 선정돼 심사를 가졌고, 고성군 도원리는 도시권과 가깝고, 주위 개발가능성이 없는 한적한 곳이며, 인근 골프장과 인접해 있고, 교통이 편리한 곳이라는 장점을 들어 국회사무처가 가장 적합한 부지라며 선정했다. 따라서 다시 타당성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충북지역 정치인들이 사전 후보지로도 선정되지 못했던 제천을 이제 와서 거론하는 것도 억지로 떼쓰는 것으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17대든 18대든 국회연수원 입지는 고성군으로 결정돼야 한다. 지역에서도 한나라당과 국회에 강력하게 이를 요구해야 한다.

설악신문 1990년 5월28일 창간 / 1992.6.12 제3종 우편물(가인가)

- 창간이념 : 지역사회의 밑거름, 지방문화의 활성화, 생활정보의 전달, 주민을 위한 신문
 - 발행·편집인 : 박명중 · 전무이사 : 고영진 · 편집국장 : 장재환
 - 인쇄처 : 강원도민일보사
 - 편집·광고국 : TEL(033)636-2222~6 · FAX 636-2227
 - 등록번호 : 1990.3.16. 강원 다 01008
 - 구독료 : 월3,500원 / 1년 40,0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 2008년 속초청년회의소 슬로건 -

“21세기 속초의 미래, 청년의 힘으로”

♥속초청년회의소 회원 업체♥



최성호
속초청년회의소
상임부회장

자동차 검사 · 파손 수리전문
영동공업사

공장장 : 최성호

TEL : 632-1198, H-P : 011-373-1197

☎ 위치 : 속초시 조양동 1424-1(엘컴콘도 앞)

속초청년회의소 신입회원공고

❖자 격 : 속초시에 거주하는 만 20세~42세 까지
진취적이고 건강한 정신을 가진 청년

❖구비서류 : 가입신청서, 추천서, 이력서(등)

❖연 락 처 : 속초JC 사무국

TEL. 033) 633-3435 / 사무국장. 011-9064-0463



영상으로 표현되는 아름다운 세상!

설악 영상사업단

오늘날 비디오 영상분야는 디지털장비와 소프트웨어의 눈부신 발달로 종전의 값비싼 장비가 아니라도 매우 좋은 화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저희 설악영상사업단에서는 영상문화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목표로 정예 전문 인력을 구성해 작품성을 한차원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사·업·분·야



방송영상

TV와 인터넷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는 영상물을 제작합니다. 현재 YBS VJ현장속으로와 KBS VJ리포트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홍보영상

기업과 일반소비자, 기업과 기업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으로서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쌓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영상편집

한차원 높은 편집을 원하십니까? 모든 영상 및 사진 자료를 수정, 보완 후 특수효과를 삽입하여 최상의 화질과 기술로 완벽한 편집을 하여 드립니다.



CD/DVD제작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여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자료를 한층 돋보이게 해 드립니다.



광고영상

회사의 주력상품을 케이블을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폭발적인 매출신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교육영상

수준높은 교육콘텐츠를 제작하여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이끌어 낼수 있도록 교육용 CD를 제작하여 드립니다.



영상·사진촬영

- 무용, 연극등의 각종 문화행사
- 이벤트, 콘서트 증계



인코딩(동영상제작)

6mm/8mm/VHS/Beta tape등을 avi/wmv등의 파일로 제작해 드립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21C 멀티미디어 시대! 설악영상사업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속초시 교동 아남프라자 1302호 문의. 033. 633-0402, 011-9799-7247 / 무료상담전화 : 080-455-1001